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89 1981년12월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December 7,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EC 10 1981

헌법개정안 하원통과

의원들 감격 "오캐나다" 제창

◇하원에서 헌법개정안의 통과가 선포되는 순간 의원들은 일제 기립, 트루도 수상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트루도 수상으로서는 정치가로서의 역량이 다시 한번 과시되는 영광의 순간이다.

(오타와) 캐나다 연방하원은 2일 14개월간의 진통끝에 마무리지어진 헌법개정안을 가 246표 부24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캐나다가 자체 헌법을 가지려는 오랜 꿈의 실현이 한발 더 가까와 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헌법개정안은 앞으로 상원의 가결과 영국의회의 인준만 거치면 된다.

역사적인 개정안통과 의 순간을 지켜 본 하원의원들은 통과선포가 있자, 감격을 누르지 못해 일제히 일어서 국가 "오 캐나다". 를 합창했고, 이어 캐나다를 명실공히 완전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개정안 통과를 필생의 과제로 삼아온 트루도수상에게 열렬한 기립박수를 보냈다.

한편 유일하게 개헌에반대한 퀘벡주는 헌법 통과 수시간전 이에 항의하기위한 법적조처를 개시했다. 르벡 수상은 퀘벡주를 위해 슬픈날인 이날을 맞아 전 퀘벡주민은 조기를 내걸도록 지시했다. 몬트리얼의 유력지 "르 드보아"는 이날이 캐나다로서는 "치명적인 날"이라고 선언했다.

부표를 던진 의원들은보수당 17명, 자유당 5명, 신민당 2명 총 24 명이었고, 이들은 이미 개헌에 항의키로 한 당의 정책에 반기를 든 셈이다.

장·크레치엥 연방법무상은 "연방정부는 상원및 영국의회 통과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이며, 만일 퀘벡주가 마지막 순간 생각을 고칠 경우에 대비, 언제라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선언했다.

장·크레치엥법무는 트루도수상의 오른팔로서 개헌안의 "세일즈·맨"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으므로 개헌안 통과는 크레치엥법무장관의 개인적인 승리의 의미도 지닌다.

조·클라 보수당당수 는 "보수당은 내주초 상원에서 개헌안에 대한 토의를 계속할 것이며 퀘벡이 이때 협상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아무튼 길고도 고된 개헌논의가 끝나는 데 대해 안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 연방장관은 "오늘은 캐나다의 날이다. 캐나다가 실질적인 독립권을 회복한 날이다.

그러므로 르베끄 수상이 캐나다의 독립을 축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서구적자유화 우려

중공, 등소평 부주석

중공의 등소평 부주석은 2일 공산당 반대파들을 「부르죠아적 자유주의」에 물들었다고 신랄히 공격하며, 모택동 사후 이루어놓은 진보적 업적이 새로운 문화혁명으로 와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공산당 이념 기관지 「홍기」(Red Flag)에 실린 논설에서 "비판과 통제가 없으면 잘못된 이념적 경향이 전염병처럼 사회에 퍼져 국민들의 이해와 사회 전체의 안보와 단합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문화대혁명같은 재난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등소평은 점점 많은 중국인들, 특히 젊은이 들이 서구적 개념의 언론의 자유, 경제 향상, 제한받지 않는 예술과 문학표현에 심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금주의 행사▷

(12월7일~13일)

◇12월11(금) 하오6시30분 : 한인컴퓨터회(COSKA) 총회
곳 : Bickford Park고교(777 Bloor)
연락처 : 929-8487

◇12월12일(토) 12시30분 코리안컵 볼링대회
곳 : Playtime Bowl(33 Samor Rd.)
연락처 : 759-8228(Mr. 장)

◇12월12일(토) 하오7시30분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세3회 공연
곳 : East York Collegiate(650 Cosburn Ave. at Coxwel)

◇12월12일(토) 하오7시 와대동문회 송년파티
곳 : Dinner-Santoria Chinese Cusine(3600 Victoria Pk. Ave.) Party-최동주 부회장집(56 Alexmuir Blvd)
연락처 : 298-9970(Mr. 최)

◇12월12일(토) 하오6시30분 도상동창회
곳 : 75 Emmett Ave.
연락처 : 구전모 B) 531-2236

◇12월13일(일) 하오6시 해병의 밤
곳 : Canadian Force Base(Keele & Sheppard)
연락처 : 846-2444(Mr. 남)

회관이전 긴급총회 연기

보다 많은 의견집약위해

한인회는 12일로 예정한 한인회 긴급총회를 당분간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

한인회관 이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이번 긴급총회를 연기시킨 이유로 박인순한인회장은 "보다많은 교민들의 의견을 집약할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함"이라고 4일 발표했다.

2일 저녁 있은 회관이전 문제 공청회에는 약 30 여명의 교민들이 모여 열띤 논쟁을 벌인 결과 이전찬성이 반대보다 2대 1 정도로 많았다.

단증수여식

12일, 유도협회

대한유도협회 캐나다지부(지부장 : 성용창)는 12일(토) 하오2시 한인회관에서 단증 수여식을 갖는다.

지난 3월 협회는 유도 유단자 심사를 가진 후, 본국 유도협회본부에 단증교부를 요청했었다.

이번 단증을 교부받는 사람은 김호선(5단)씨외 4명이다.

◆비통한 남편과 딸-2일 거행된 나탈리·우드 장례식에 참석하러 집을 나서는 남편 로버트·와그너와 딸 코트니(6). (UPI)

런던한인회, 에트닉제전 참가

고유음식, 무용, 공예품등 소개

(런던=강상권지국장)런던한인회는 지난 11월 22일 런던 중앙회관에서 열린 소수민족들의 제전인 홀리데이·페스티발에 참가, 한국의 무용, 고유 음식및 공예품등을 소개했다.

30여 개국이 참가한 음식 페스티발에서 부녀부(부장 : [illegible])는 [illegible] 만두, 잡채, 김밥등 다채로운 한국고유의 음식을 선보였다.

한복으로 곱게단장한 안내소녀들은 [illegible] 부터 잡채 만드는 법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특히 한국소녀들이 벌인 꼭두각시춤은 박수갈채를 자아냈다.

2층홀에서는 이광영(전한인회장)씨 주관으로 한국인의 우수한 공예품 전시가 있었다.

◇페스티발에서 한국음식을 소개한 한국관. 강상권 지국장이 지켜보고 있다.

대한항공국제선 요금인상

미주 동남아 5% 유럽중동 10%

(서울 3일=연합)한국정부는 12월말경 국제노선항공요금 인상을 허가할 것 같다.

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유럽과 중동노선의항공요금은 10%, 미주지역및 동남아시아 노선은 5% 각각 오른다.

국제항공협회(IATA)는 지난 4월 항공요금 을 5~10% 올릴 것을 가결한 바 있다. 이같은 IATA의 결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려면 각국정부가 이에 동의해야 한다.

교통부의 한 당국자는한국은 여지껏 IATA의 결정 실행을 보류해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속되는 외국항공사들의 압력으로 한국정부는 부득이항공요금 인상을 허가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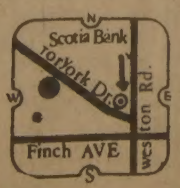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몰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키프트 샵. 새로 OPEN 됨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래프트, 허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대지및 가옥
2술에이커 땅에 가옥이 있으며 교회자리로 적합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제5회 신춘문예 현상모집

이민생활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날이 짙어짐은 모국어에의 애착과 그 전통문화및 예술에의 향수입니다.

이에 이민사회에 한국문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코자 숨은 문재의 발굴을 꾀하여 다섯번째 현상문에 모집을 실시하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시(시조포함) : 편수 제한없음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30~60매
수 필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평 론 : 테마 자유 ·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
희 곡 : 200자 원고지 60~120매
아동문학 : 동화(200자 30매 이내)
동시(동요·동화시 포함)편수제한 없음.
마 감 : 1981년 12월15일
제 출 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
Korean Canadian PEN Club
5 Massey Square #2008
Toronto, Ont. M4C 5L6
발 표 : 1982년 1월1일
시 상 : 각부분 당선작 1, 가작 1.
심 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반드시 이름(본명)·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적을 것.(필명이나 가명은 무효)

주최
캐나다한국문인협회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H55

◇캐나다 에드워드 쉬리어총독이 가족들과 함께 총독관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위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로부터 토반(6), 카멜(17), 총독부처, 제이슨(14), 리사(19)

유급 임신휴가 법제화

연방정부에서 검토중

직업여성들에 대한 유급 임신휴가를 법제화 하려는 움직임이 연방정부 장관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직업여성들에게 유급 임신휴가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여성담당 에롤라장관 성명발표가 있은 직후 연방정부는 에롤라장관을 비롯 액쉬디 고용장관, 베긴 보건장관, 존스톤 •재무위원장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심의하게 됐다.

동위원회소속 장관들은 각 부처별로 몇가지 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실업보험 임신수당을 개선, 확장하는 것이다.

이 보험계획은 현재 봉급의 60%를 임신휴가로15주까지 지급한다.

동우회 연말잔치

경품푸짐·프로다양

토론토의 동우회(회장 원영신)는 12월26일(土) 하오7시~상오1시, 스카이라인 토론토호텔(655 Dixon Rd)에서 망년회를 연다.

부페의 식사에 권순근악단의 연주를 곁들일 이 파티에는 경품이 많은 것도 특색의 하나이다. 성대한 모임 마련에 힘쓰고 있는 동회의 이사, 임원들은 경품용으로 한국왕복 항공권 TV, 시계등 다수를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용도 풍부한 동우회 망년파티에 회원 다수 참가를 바라고 있다. (연락처 : 222-5370 김남용, 270-1531 정기영)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보안시설 완벽"

무장호송차측 본보에 밝혀 "FBI조사서 우린 과실없었다"고

$200만사건

뉴욕 리퍼블릭·내셔널뱅크(R·N·B)로부터 현금 2백만달러의 운송책임을 맡았던 아모드·익스프레스(Armored Express Inc.)의 존·웬워스사장은 30일 『우리회사는 2백만달러 증발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웬워스사장은 아모드회사는 뉴욕에서 10대현금운송회사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10년이래 한번도 사건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우리회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보안시설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약10분간 통화한 내용의 요지이다.

-회사가 언제 설립됐는가.

▲10년이상 됐으며 지금껏 뉴욕의 대은행을 비롯 50개내지 60개은행과 거래해 오고있다.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현금행낭 5개를 리퍼블릭뱅크에서 인수과정과 보관과정, 그리고 KAL 기의 인계과정을 설명해달라.

▲이사항은 현재 보안사항(Confidential 로 표현했음)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

-호송원4명이 운송했다고 하는데 이름을 밝힐수 있는가.

▲그점도 보안사항이라 대답할수 없다.

-그호송원들이 귀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는가, 즉 5년이상 되는가?

▲모두 5년이상의 오랜경험을 지닌 베테랑 운송원들이라고 분명히 말할수 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

-귀회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FBI의 조사를 받았는가.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는 뒷받침은 무엇인가.

▲우리 자체조사를 통해서도 증발사건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는 점이다.

-귀회사가 현금운송회사로서 어느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얘기해줄수 있는가.

▲현재 우리회사는 미국 뉴욕에서 톱10에 들어가는 회사이다.

-이번 사건이외에 귀회사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고라도 있었는가.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이번 사건과, 우리회사와 연결시키지 말라. 「이번사건이외」라는 말은 정확치 않다. 우리회사는 현금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가 잃어 버린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내가 답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KAL 뉴욕職員 참고證言을 실시

2백만달러 증발사건과 관련 KAL 뉴욕사무소 관계자들이 FBI와 뉴욕경찰 그리고 리퍼블릭은행으로 부터 사건과 관련 조사와 참고증언등이 실시된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승 KAL뉴욕화물과장은 『지난 23일 밤12시께 FBI 매튜스수사관으로부터 서해식 화물과장이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FBI는 화물의 접수및 적재과정과 조종실까지 운송과정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전했다.

한편 FBI 뉴욕사무소 조·발리케트 대변인은 30일 현재로서는 수사과정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만 대답하고 있다.

〈뉴욕지사〉

韓國, PLO 인정

팔레스타인 民族의 代辯機構로 이스라엘에 아랍占領地 철수요청

〈서울-UPI〉 한국정부는 2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변기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또 한국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난 1967년 전쟁에서 획득한 아랍영토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노신영외무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성명은 지난달29일 UN본부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념파티에 전해졌다.

다저스 記錄的 보수받아

選手들 收入공개꺼려 發表는 안해

◆「올해의 신인」 퍼난도–상복, 돈복이 터진 LA다저스 투수 퍼난도·발렌주엘라는 2일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으로 뽑혔다.〈AP〉

양키즈는 1人當 3만9천弗수령公表

〈뉴욕-AP〉 1981년도 월드·시리즈 야구결승전에 진출했던 LA다저스팀과 뉴욕·양키즈팀은 기록적으로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승팀인 LA다저스팀은 정확한 보수는 밝혀지지 않은채 비밀로 남아있다.

다저스팀의 총수입은 1백78만7천1백53달러89센트, 이중 1백49만1천5백1달82센트는 월드·시리즈 우승에 따른 보상이며 나머지는 디비전결승전에서 벌어들인 수입이다.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은 35명이 똑같이 나눠 가졌으며 일부는 따로 떼어 5명에게 별도로 분배했고 8명의 유니폼착용선수들과 19명의 선수아닌 구단직원들에게도 현금보상형식으로 나눠 주었다.

다저스팀은 이외에도 디비전결승전에서 벌어들인 돈을 분배했다.

그러나 LA야구선수와 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회는 다저스팀의 수입을 일반에 공표하지 않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1인당 정확한 분배액은 비밀에 싸여있다.

다저스팀과는 달리 뉴욕·양키즈팀은 금년도 수입에 대해서 비교적 공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들은 선수 1인당 3만9천6백9달러20센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액중 2만8천8백45달러17센트는 월드·시리즈경기 수입분배액이며 나머지 1만7백64달러3센트는 디비전·시리즈 수입분배액이다.

양키즈팀 수입은 30명이 나눠 가졌다.

리그챔피언쉽 시리즈와 월드·시리즈경기에서 벌어들인 총수입은 기록적으로 많은 4백14만3천60달러63센트에 달했다. 이수입은 다저스, 양키즈 그리고 풀·시즌경기실적을 토대로 한 첫디비전팀들에게 분배되었다.

이전의 최고수입은 작년도의 3백91만5천8백70달러82센트.

바다에 진「만년소녀」

나탈리·웃 뒷이야기

여배우 나탈리·웃의 죽음은 그녀가 최근 출연중인 영화의 상황과 너무 닮았다고 1일 시나리오작가 브루스·루빈이 말했다.

그는 나탈리·웃이 출연중이던 제작비 천2 백만달러의 영화 『브레인 스톰』(Brain Storm)의 촬영 속개문제에 대해 MGM간부들이 토의하는 자리에서이와 같이 밝혔다.

루빈은 영화의 주제와웃양의 죽음사이에 놀랄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MGM사의 금지조처로 자세한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웃양이 LA에서 가까운 산타·카탈리나섬 조금 떨어진 해안에서 지난 29일 익사체로 발견된 이래, 영화제작은 중단상태로 되었다. 원래 12주 촬영예정인 동영화는 2주를 남겨놓고 중단됐다.

웃양의 죽음은 남편 로버트·와그너가 출연하는 TV연속극 『하트 투 하트』(Hart to Hart)의 제작중단도 몰고왔다. 사고이후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와그너는 너무 슬픔과 비통에 빠져있어 당분간 출연이 어려울 것 같다

LA카운티 수석검시관 토마스·노구찌씨는 웃양이 29일아침 일찍 와그너의 요트 "스플렌더"호에서 상륙용 작은 고무보트로 옮겨 타려다 미끄러져 익사했으며 그녀의 사망에는제3자가 가담한 협의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웃양의 왼쪽 볼에 생긴 상처로 미루어 그녀가 실족, 요트에 얼굴을 부딪친 뒤 바다에 빠졌음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노구찌씨는 "우드의사인은 살인도 자살도 아니며 단순사고사"라고 결론지었다.

웃양은 남편과 자기가출연하던 영화 『브레인 스톰』(Brain storm)에 같이 출연하는 배우 크리스토퍼·워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요트를 떠났으며, 그 당시 약간술에 취하였고, 잠옷에 자켓을 입었다고 노구찌씨는말했다.

경찰은 1일 와그너와워큰을 좀더 심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구찌검시관은 이들 둘의 말다툼이 웃양에 관한 것이라는 아무 단서가 없다고 밝혔다.

웃양은 익사하기 바로전 와그너, 워큰과 같이 섬안의 레스토랑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곳 분위기에 불편해한 것같았고, 주위 사람들이 샴페인을 그들에게 억지로 권하자, 그곳을 떠났다고 레스토랑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했다.

레스토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잭·라이트는 워큰은 샴페인 글래스를 벽에 던졌으며, 와그너와 웃양도 따라 던졌다고 말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나탈리도 유쾌한 것 같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정했던 부부 나탈리·웃과 남편 로버트·와그너

「이유없는 반항」 출연주역 4명 사고사

영화를 끝내기 전에 죽은 배우에 대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억할만한 사건으로는 55년와너·브라더스제작 『 자이안트』에 출연중이던 제임스·딘이 자동차사고로 죽은 경우이다. 제임스·딘 대역으로 배우 닉·아담스가 출연, 영화를 완성했다.

딘의 죽음은 그의 두번째 영화 『이유 없는 반항』이 상영되기 바로 전에 일어났다. 이 영화에 웃양이 출연하여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었다. 웃양은 그후도 2번 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으나수상은 못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유없는 반항』에 출연한 4명의 주연배우들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 『딘』은 24세의 나이로 스포츠카 폴쉐를 과속운전하다 사고로죽었고, 「살미네오」는 37세에 칼에 찔려 살해됐으며, 「웃」양은 43세로 익사했다.

웃양의 가족대변인은 공식장례 절차는 없을 것이며, 매우 간소하고 사적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가족의 요청에 따라 부조금은 LA에 있는 러시안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나영화보건복리기금(Motion Picture Health and Welfare Fund)에 기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횡사한 4배우–1953년 영화 「이유없는 반항」에 출연했던 배우 4명이 모두 횡사했다. 오른쪽으로부터 제임스·딘(교통사고), 나탈리·우드(익사), 닉·애덤스(교통사고), 살·미네오(피살).〈AP〉

공고

— 긴급 총회연기 —

12월12일 오후2시에 개최예정이던 한인회관 이전에 관한 긴급총회는 12월2일 밤의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참작 교포 각 가정에 찬, 반 설문서를 발송하여 여론을 들어보고 충분한 토의기간을 갖은 후 총회를 소집코저 후일로 그 소집을 연기하오니 교포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 않읍니다.

1981년12월3일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 박 인 순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관 나옥녀 올림

부산대학교 동창회 및 X—마스 파티

즐거운 성탄파티겸 망년회를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1일(금) 오후9시
장 소 : 회장댁(40 SUNRISE AVE #315
연락처 : 753—3398, 755—9902

부산대학교동창회
회장단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中共 결혼상담소 盛業

한때 젊은이들간의 이성교제가 실절적인 범죄행위로 간주되기도 했던 중공에 최근 메이트를 알선하는 결혼상담소가 개설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항구도시 상해에서 최초로 문을 연데 이어 지난해 북경에 두번째로 상담소가 생겨 수천만 중공 젊은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의 결혼상담소는 초록색타일 지붕을 가진 한아름다운 사원내에 자리잡고 있다. 일요일 하오가되면 이곳은 북경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로 변한다.

이 상담소의 직원들은 신청서의 작성을 도와 적당한 짝을 찾아주고 있는데 『현재의 직원 7명으로서는 몰려드는 신청자들을 도저히 감당할수가 없다』며 즐거운 비명.

앞마당에는 수십명의 청년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 옆건물에서는 여성들이 신청서를 기재하고 있었다.

『현재로서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결혼신청이 더 많아요. 처녀들은 수줍은가봐요. 그래서인지 어머니를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요.』—한직원의 얘기다.

한노부인은 차례를 기다리다 지쳤는지 청년들이 모여들때마다 그녀의 딸자랑을 늘어놓으며 수속없이 「바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결혼신청자의 대부분은 20대중반인데 58세의 노총각이 신청한 경우도 있다. 중공에서의 결혼허가 연령은 남자 22세, 여자20세 이상이다. 신청자들은 사진2장과 신상명세서 한통에다 수수료 1불30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직장단위로 10명이상이 단체등록을 할 경우 80센트로 할인된다.

세번까지의 중매가 허용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파트너를 거부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한직원이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리앙·제·쳉(27)이라는 한 타일직공이 진지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는 이상담소에 맨먼저 등록을 마친후 적당한 배우자가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또 다시 찾아왔다고.

열렬한 공산당간부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상담소들은 서구의 상담소들과 같이 천박스런 장소는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하기때문에 적당한 결혼상대자를 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일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이나·유드·뉴스지는 최근 결혼상담소에 관한 기사에서 『젊은이들은 결혼상대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 사랑의 결핍으로 학업과 작업에대한 그들의 정열이 손상되고 있다. 이는 중공의 근대화계획이나 그들 자신의 발전에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기사는 남녀가 교제할수 있는 바나클럽같은 시설이 전혀 없는 중공에서는 결혼상담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신문은 『어떤 직종에서는 남녀구성비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도자기·보온병·자전거공장에는 남자가 훨씬많고 벽시계나 손목시계·식료품공장에서는 그 반대이다. 이처럼 남녀가 접촉할수 있는 기회가 적어 수많은 젊은이가 결혼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상담소는 젊은이들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로칼뉴스

봉사단체"신우회" 제야에 송년회

토론토의 한인친목단체중 하나인 「신우회」(회장 배기웅)는 12월31일(목)하오7시 거구장에서 밴드및 가수 특별출연의 송년파티를 벌인다.

교민 아무나 참가할 수 있으나 선착순 80카플로 마감한다고.

8년전 14세대의 교민이 친목을 목적으로 끌어오다가 작년에 2세교육문제등 사회봉사단체로 성격을 바꾸었으며, 가입 희망자는 동창·혈연·지연등을 초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

현재 60명 회원중 임원(집행부) 15명, 선임회원(이사격) 15명이 이 회를 꾸려 나가고 있다.

신우회는 지난해 모아진 성금을 한국일보사를 통해 모국 나환자촌에 회사한바 있고, 지난 여름 주최한 골프대회 수익금 $250에 이번 송년파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보태어 제2차로 송금 예정으로 있다(연락처 : 743—8220, 정).

신우회장 : 배 기 웅
부 회 장 : 강 강 춘
기획부장 : 정 상 우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2등을 차지한 박수영양의 연주광경

런던 교포 2세들 음악에서 두각

(런던=강상권지국장)런던교포소녀 박수영양(11세)지난28일 웨스톤대학 에서 개최된 뮤직 페스티발(Canadian Music Week Festival)에서 피아노부문(Grade 7)과 성악부문에서 2개의 은메달을 받았다.

이밖에 이대일, 하철군도 1등으로 입상,두각을 나타냈고, 강규도군과 김헬렌, 천선화, 신제니퍼, 이두시양등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99)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백인 무역자들의 갑작스러운 퇴거에 따라 실탄의 보급이 끊기자, 이할미우트의 짧은 회복기간도 끝장이 났다.

1926년에는 일천 명이 넘던 이할미우트가 삼백여명 밖에 살아남지 못했다.

하나 둘씩 작은 캠프들은 없어져 갔고, 해마다굶주림의 기간에 태어나는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많은 새 무덤들이 늘어났다. 또 해마다 생존자들이 그 무서운 죽음의 도전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찼다.

드디어 살아남은 몇사람이 향수를 못이겨 리틀힐스의 옛고장으로 모여들었다. 이 실의와 향수에 찬 불쌍한 사람들은, 민족의 멸망을 초래했던 가꾸미까지 그 호수로 돌아와 이삼마일밖에 캠프를 세우자더욱 한심해 졌다.

그러나 전후에 경기가회복되자, 런던, 몬트리얼, 뉴욕의 모피값이 다시 올라가 이때 사상최고로 값이 올라갔다. 무역자 들은 이 평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1926년과 1930년 사이, 일곱개가 넘는 무역소가바렌의 접경에 하루아침에세워져 일정한 기한없이 경영되었다. 또다시 무역자들은 이할미우트에게 실탄과 밀가루, 설탕을 보급해주었다. 이들 생존자들은 무역자들이 시키는대로 했다.

그런데 이번의 타격은 더욱 빨리 왔다. 무역자들은 다시 바렌을 빠져나왔고, 1938년도에는 이 사람들의 캠프에 단지 백명도 채 남지 않게됐다. 그리고 1947년에는 오직 47명밖에 살아있지 못했다. 이것이 가꾸미가 남쪽에서 그 땅에 돌아온 날부터 삶과 죽음의 패턴이었다.

이 기간중에 이할미우트는 우리가 쥐를 잡아 쓰레기로 버리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적은 도움을 받았다.

1947 이전에는 바렌에퍼진 이들 악조건을 조사하고, 완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을 정부가 해본적이없었다. 47년에 와서야 이사람들의 캠프에 일어나고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방지하고 대책을 생각하게되었다. 그러나 1959년도까지 우리들은 과거의 편견을 고치지 못하고, 일련의 시도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약 40명도 안되는 숫자가 남아있으며, 이들중에도 아이를 낳을수 있는 여자들이 몇명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할미우트를 위해 무엇을 해야될 것인지 말만할 뿐이지, 실지로 아무것도못하고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들의 태만죄를 뉘우칠 단계에 이르렀다.

일찌기 1921년 처칠에와있던 어떤 선교사가 겨울동안 내륙에 살고있는 500명에 가까운 원주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보고를 했었지만 그의 보고는 묵살되고 말았다.

그큰 고통이후의 어두움에 쌓였던 몇년동안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싸워야했지만 샤만인 가꾸미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 고난의 기간동안 가꾸미는 연재나 식량과 총과 실탄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만일 그가 고기가 떨어지면 썰매를 몰고 사냥을 충분히 한 동네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만큼 뺏아오기도 했다. 그래도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아니고 귀신과 악마의 세계에서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비록 가꾸미가 여러 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잘 먹여살렸지만 아무도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런 자기의 무기력때문에 그의 성질은 난폭과 야만적인 절망에이르게 되었다. 그의 생식불능의 좌절감은 마귀같은난폭성을 부채질해서 어린애들을 훔쳐다가 자기애라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잔뜩 굶주린 사람들이 가꾸미에게 와서 자존심을 버리고 공포를 참아가며 여러 번 먹을 것을 구걸했다. 그러나 아주트의 아들은 절대로 남에게 주는 법을 몰랐다. 그는 굶어서 곧 죽게된 사람들을 몰아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캠프에돌아오는 도중에 죽어버리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도 가꾸미의 캠프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고 , 가꾸미는 자기가 훔쳐온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으며 살았다.

(계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단체손님 환영。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봉사합니다。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BLOCK BROS
NATIONAL REAL ESTATE SERVICE

칼가리 오일 붐 타운!
칼가리로 이사를 오시렵니까?
비지네스를 찾으십니까?

금주의 리스팅

	SALE	ASKING	DOWN
GEOCERY	$27,000/mon	$84,000.	$35,000.
	30,000	99,500.	99,500.
FAST FOOD	$1,500 /day	$560,000.	$560,000.
	400 /day	71,000.	71,000.
	450 /day	68,900.	68,900.
DOUNUT SHOP	$600 /day	$135,000.	$135,000.

그럼 **정월남**을 찾아 주십시요.

전화 : (B)403—245—4381
(R)403—246—0211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

금번 한인볼링협회는 제1회 코리언 컵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가지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일시 : 198 1년12월12일(토)오후12 : 30
장소 : PLAYTIME BOWL LTD(33 SAMOR RD
종목 : 부부전(혼합식) 참가비 $7—
단체전(3인1조) 참가비 $20—
개인전(남, 녀) 참가비 $7—
시상 : 개인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
남 1, 2, 3, 4, 5등, 여 1, 2, 3등
핸디캡—남, 녀 1, 2, 3 등
부부전—챔피언(애뉴얼트로피)1, 2, 3등
단체전—우승, 준우승
하이싱글및 장려상—남, 녀 1명
부상 : 개인전 챔피언—제니스 흑백TV
(아카데미TV사 김정운 제공)
여자 1등—무료파—마권(헬렌미용실 이승자 제공)
부부전 챔피언—범랑 김치통셋
(미도파백화점 장추신제공)
핸디캡 남1등—국보쌀(한국식품 서부서춘원)
핸디캡 녀1등—장미쌀(한국식품서부)
※본시상은 12월19일 송년잔치 장소에서 있겠읍니다.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크리스마스및 송년잔치

한인볼링협회는 회원및 교민의 크리스마스겸 송년잔치를 아래와 같이 가집니다.
일시 : 1981년12월19일(토)저녁7시30분~새벽1시
장소 : ALBION 커뮤니티 센터(1485 ALBION RD & KIPLING AVE.)
회비 : 커플 $30— 싱글 $20—(식사, 주류, 드링크 포함)
회원권판매 : PLAYTIME볼링장에서 매주 일요일 하오6~9시, 한국식품서부
파티 프로그램
● 시상식(제1회 코리언컵 볼링대회)
● 행운경품 추첨
벽시계(영리무역 이영현 제공)
카 스테레오(HI—FI HOUSE 박명호)
액자(H&S PICTUR FRAME조성호제공)
라면 1상자(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샘표간장(한국식품서부지점 서춘원)
● 노래와 경음악(4인조밴드 출연)
● 댄스파티
전화 : 759—8228(Mr. 장), 622—0224(Mr. 오)

주최: 재카나다 한인볼링협회 후원: 한국일보사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열쇠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燕山主의 魅力 <13>

한국의 恋人들

피적삼과 孝思殿

全完吉 (太平洋 博物館長)

어머니,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이 귀소성향(歸巢性向)을 지녔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머니 품을 동경한다. 그러기에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은 가장 질긴 끈이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부모의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연산은 가장 불행한 왕이었다.

父母情 모르면 豪奢롭게 자라도 非正常的이기 일쑤

즉위 이듬해 어머니의 원한알고 처절한 앙갚음에 나서

어느 코아원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완벽한 영양공급을 하더라도 부모밑에서 자란 어린이보다 발육이 늦다 하였다. 마찬가지로, 가장 호사스럽게 자란 연산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을 모르고 성장했기에 비정상적이게 마련이었다. 아버지인 성종은 어린 무작금(연산의 兒名)을 사랑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철들기 전에 궁밖으로 쫓겨나 사사(賜死)되었으니까. 철이 들자 여성의 섬세한 정감에 현혹되어 못 여인을 동경하게 되고, 어머니가 누명을 쓰고 폐비가 되어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몸부림친 융(연산의 本名)의 행동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연산은 뛰어난 효자였고, 사나이다운 사나이였으니까.

그런데 그 불행의 씨앗은 성종이 뿌린 것이었다. 기록「燕山君日記·海東野言·燃藜室記述」에서 사건을 간추리면 이렇다.

조선 역사상 명군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불행했던 성종은 첫 왕비인 한(韓)씨와 1474년에 사별한다. 왕비의 나이 열 아홉, 성종의 나이 열 여덟으로 즉위 5년째의 해였다. 실의에 젖은 성종은 두 윤숙의(尹淑儀)를 사랑했는데, 폐비가 된 윤씨로부터는 연산을, 훗날 정현왕후가 된 윤씨에게서는 진성대군을 낳았다. 이때 성종은 두 숙의 외에도 엄소용과 정소용등 여러 후궁을 피었는데 원자(元子) 무작금을 얻자 그를 낳은 윤숙의를 왕비로 책봉했다. 원자를 낳음으로써 왕비가 된 윤씨는 성종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성종의 바람기를 잡지 못했다.

그래서 초조해진 윤왕비가 두가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 임금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데다가 왕비의 방에서 비상(砒霜)과 방술책이 발견되었다. 「엄소용과 정소용이 왕비와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투서를 하여 임금의 환심을 받는 엄·정 두 소용을 제거하려던 것이 설상가상 들통나 버렸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며느리를 미워하던 모후 인수대비(仁粹大妃)가 손톱 자국이 뚜렷한 성종을 뜰에 도열한 관리들 앞에 내세웠다.

이러한 사건들이 빌미가 되어 국모가 부덕하다는 이유로 폐위된다. 무작금이 다섯 살되던 1480년10월이었다. 평민의 신분으로 강등시켜 친정으로 내쫓고 공봉(供奉)할 물자도 끊은데다가 사람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 뿐아니라 사람을 보내 감시케 하고, 또 승지를 보내 언문으로 쓴 죄목을 매일 읽어 주었다.

그러고 보면 성종은 매우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로 추측되는데, 어느날 윤비의 동태를 살피고 오는 내시를 인수대비가 매수하여「윤씨가 머리 빗고 낯 씻어 예쁘게 단장하고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보고시킴으로써 더욱 박정한 사이가 되고 끝내 사약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는 겁이 났던지 무작금이 자라 등극한 뒤에라도 윤씨의 묘를 개축하지 못하도록 왕명으로 기록해 두고, 폐비와 사사의 전말을 알려주지 말라고 엄명했다.

그러나 어찌 이처럼 피비린내가 지독한 사건이 영원히 덮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 속담에「여자의 앙심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게한다」는데 어찌 조용할 수있을까. 더우기 궁벽한 여염집에서 굶주리며 매일 피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최후를 알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까.

연산은 여러 차례 소개하였듯이 자상 하고 인정이 많은데다가 효심이 두터웠으니 어머니의 피맺힌 적삼을 그대로 불살라 버릴 수가 없었다. 윤씨의 양심이나, 연산의 인정으로 미루어 사건은 성종 자신도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연산이 어머니의 폐위사실을 안것은 즉위 이듬해인 1495년 3월이었다. 성종의 묘지문(墓地文)을 보다가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윤기무(尹起畝·성종의 장인)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어머니가 폐위되어 죽은 줄 안 연산은 수라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 죄를 얻어 폐비된 줄로만 안 연산은 이듬해에 내시를 보내 어머니의 묘를 살폈다. 묘가 무너져 해골이 여우와 삵에게 먹힐 지경이라고 보고 받자 자식된 정으로 차마 듣지 못할 일이라 하여 천장(遷葬)을 결심한 나머지 천장불가를 말하는 자는 용서없이 참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말하는 자는 신하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나아가 사당을 짓고 효사묘(孝思廟)라 하였으나 대간들의 반대에 부딪쳐 효사전(孝思殿)이라 개칭하였다. 그리고 폐비의 어머니 신씨(申氏)에게 해마다 쌀 30석과 황두(黃斗) 20석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1500년 5월, 효사묘에 조석상식(朝夕上食)을 올리도록 지시하였으나 선왕(先王·成宗)의 유교(遺敎)에 어긋난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철회하고 1502년 7월에야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 회묘(懷墓·윤씨무덤)에 친제(親祭)하고 능참봉을 두어 조석상식을 올린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질투하여 죄를 얻고 폐비되었으며 성종의 처사가 정당한줄 알았던 연산은 1504년 갑자년에야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다. 윤씨가 죽을 때 약을 토했는데 그것이 흰 비단 적삼을 적셨다.

또 눈물을 닦아 피묻은 수건을 어머니에게 전하면서『우리 아이가 다행히 살거든 이것을 증거로 나의 원통함을 말해주고 나를 거동하는 길 옆에 장사하여 임금의 행차를 보게 해 주시오』했었다.

마침 인수대비가 죽자 신씨가 피 적삼을 연산에게 전하니 이것을 받은 연산이 밤낮으로 안고 울었다. 연산은 피 적삼을 본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을 알고 마음이 아픈데다가 이제까지 속인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분노가 곧 증오로 변하여 어머니 대신 앙갚음에 나섰다. 그래서 친어머니인 줄 안 자순왕대비가 계비인 줄 알고, 그가 비밀을 감춘 사실에 분노하여 박대하고 사건이 엄소용과 정소용 때문에 일어났다하여 그들을 참하고 그들의 자손을 모두 귀양보냈다. 또 폐비를 전의한 신하들, 사약을 전한 이세좌, 죄목을 매일 읽은 승지들을 당시 기록을 찾아 밝혀 모두 보복했다. 이 사건이 갑자사화다.

물론, 갑자사화야 연산의 잔인성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식을 잘 기르지 못하고 아내를 처참하게 죽인 실패가장(失敗家長) 성종에게서 불행의 씨가 뿌려졌다. 연산이 역사상 보기 드문 효자였기에 사건이 더욱 처절해진 것이다.

피 적삼을 보자 울은 통곡이 증오심과 어머니에 대한 연모의 정을 말해 준다.

受難겪는 마야文明

좌익게릴라 치칼 습격…研究所 불태워

代表的보물 「춤추는 인물상」등도 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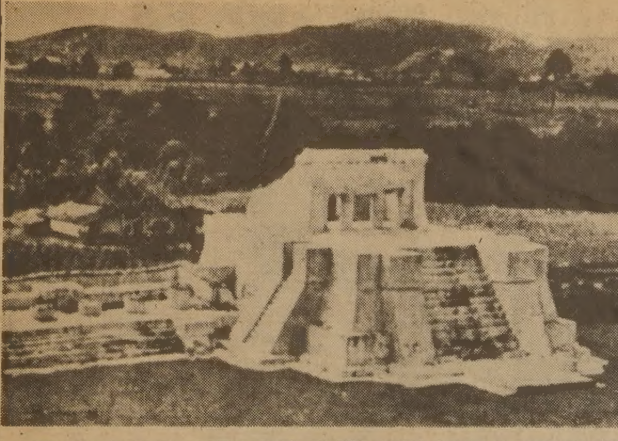
인류의 유산으로 평가받는 치칼의 마야문명이 수난을 겪고있다.

마야문명의 숨결이 남아있는곳은 중미 과테말라의 치칼지역。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9세기에걸쳐 유카탄반도일대에 꽃피운 문명의 진수가 보물과 유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다。치칼은 울창한 밀림속에 가리어 오랜세월 외부세계와 단절돼왔다。그런데 지난9월18일상오 과테말라의 좌익반란무장군(FAR) 소속 게릴라들은 치칼을습격, 발굴조사연구소등을 불태우고 신전앞광장에서「미제국주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그뒤 게릴라들은 박물관에 쳐들어가 전시된 마야의 비취목걸이등 보물여러점을 약탈했다。또 연구소의 방화로 마야시대의 발굴토기, 발굴기록은 모두 재가돼버렸다。

약탈당한 보물중에는 신비의 마야문명을 대표하는 비취인「춤추는 인물상」「인면(人面)」등이 포함되어있다。

치칼당국의 조사결과 피해액은 건물손실만 약7억원。그러나 보물과 유적의 피해는『돈으로 환산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릴라들이 왜 치칼을습격했는지 아직 뚜렷하게밝혀지지않고있다。그들의존재와 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기위해서라고만 추정될 뿐이다。고대문명일지라도 정치의 희생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가됐다。과테말라는 인구7백20만의 중미 소국。고질화된 좌·우익간의 정치폭력으로 점점 불안에 허덕여왔다。현재는 내전양상마저 띠고있다。루바、니꽈라과의 지원을 받는 좌익게릴라는 험준하고 산림이 우거진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반정활동을 펴고 있다。 【讀賣新聞】



◇과테말라북부 치칼의 마야문명 유적지。장엄하고 신비한 고대문명이 정치의 희생물이 돼가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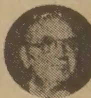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주간女性

文豪의 名言

클로델
<1868~1955>



프랑스詩人 劇作家 外交官。외교관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는데 그간世界征服의 大敍事詩劇「黃金의머리」,中世風의 神秘劇「마리아에의계시」등을 썼다。또한 大作「비단구두」(24)는 駐日大使때(21~27)의것。今世紀최대의 劇詩人이었다。

運命을 따르는게 가까운 길이어늘

人生의目的은 사는것이아니다。죽는데있다。十字架를 내세우는게 아니고 거기 올라 가진 모든걸 기꺼이 내놓는데 있다。

그래 비로소、기쁨이있고、自由가있고、은총속 永遠의 젊음이 있는 것이다。

× × × ×

外交官을 지낸 폴 클로델(Paul Louis Charles Claudel)은 랭보의 詩를 읽고 形而上의 世界에 눈떠 1886년 파리 노트르담 聖堂에서 聖寵으로 啓示를 받아 가톨릭에 回心한건 유명한이야기다。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信仰을 견지, 만물의 창조주인神의 빛으로 비쳐진 세계를 노래해 왔다。

이같은 神의 은총아래 약동하는 만물을, 그는 呼吸과 心臟의 鼓動과같은 자연스런 리듬에의해 표현했다。

이것이 소위「클로델的韻文」이란 것이다。

인용의 말은「人質」「대낮에 갈라선다」「비단구두」등과 함께 그의 詩劇의 傑作의 하나인「마리아에의 계시」중 앙느의 臺辭이다。

여기좀 앞서「참으로 人間의 生命에 비하면 무슨 값어치가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러나 무슨 값어치가있겠는가, 사람의 生命에?

그것을 기꺼이 내놓지않는다면, 뭘 억척스레 발버둥칠 필요가 있을까?

運命에 따르는게 가까운 길이어늘」이라했는데 이처럼 神과 運命에의 경건한 태도로해서 클로델은 진실로 가톨릭的 作家라 할수 있다。

그의 劇作은、후헌「비단구두」상연성공후、많은것들이 상연、클로델은 今世紀 최대劇詩人의 榮光을 누렸다。

바둑소식

最高位타이틀찾아

●…曺薰鉉8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5기國手戰도전5번기 제4국에서 도전자 徐奉洙7단을 執黑 2백26수만에 5집반차로 물리쳐 토틀스코어 3대1로 타이틀방어에성공했다。曺8단은 또 지난주열린 제21기 最高位戰도전5번기 제3국에서도 黑을들고 徐7단에 불계승、지난연초 徐7단에 빼앗겼던 最高位타이틀을 되찾았다。이로써 타이틀의 분포현황은총 7개타이틀 가운데 曺8단이 5개(名人·國手·棋王·最高位·覇王)、徐7단은 2개(王位·國棋)로 曺8단이 일방적으로 우세를 견지하고있다。

한편 금년들어 두기사가 서로 맞붙은 전적도 曺8단이 14승8패로 4국을리드하고있다。

曺薰鉉 國手타이틀 방어

徐奉洙7단에 執白 2백26수만에

姜勳 名人戰선두

●…중반에 접어든 제13기名人戰본선리그는 姜勳4단이 3승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張秀英5단이 3승1패로 2위를 쫓고있다。한편 도전자로 유력시되던 徐奉洙7단은 2승1패로 뒤처진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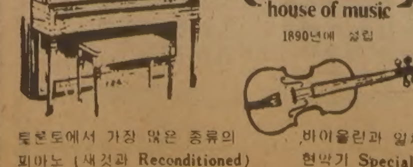
徐奉洙7단등向日

●…오는5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프로기사교류전에 출전하는 한국측대표 徐奉洙7단과 徐能旭6단이 2일 趙南哲8단과 金勳洙한국기원사업이사등과함께 東京으로 떠났다。徐7단은 趙治勳名人과、徐6단은 다께미야9단(武宮正樹)과 각각 대결하는데、이대국은 내년 新年연휴가간동안 KBS-TV를 통해 녹화 방영된다。

아마大會代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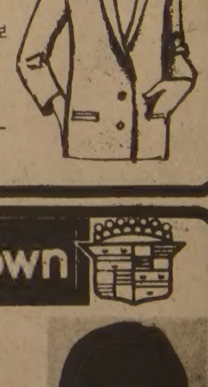
●…내년3월 일본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 파견될 국가대표선수로 羅鍾勳 金範中아마5단이 결정됐다。羅5단은 지난주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표선수선발전에서、金5단은 제15회 아마國手戰에서 각각 우승했다。 【薰】

MACHO 버거 레스토랑
●아담하고 조용한 장소로써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연말연시 각종파티나 모임에 적합합니다.
●술도판매합니다.
●파티석 70석
●파킹편리하고 음악및 시간은 예약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니 연락주십시요.
전화 : 498-1300
(MR. 리)
Steels. E
Victoria Park
Gorder Baker
Finch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바리오 인컴 넷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샾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534-2003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美國서 暗躍하는 KGB의 正体 ①

超특급 秘密까지 간단히 빼내간다

현재 미국은 과거 어느때보다 蘇聯秘密警察(KGB)의 중대한 위협앞에 직면해있다. 소련대사관을 통한 공식 침투외에도 미국의 큰 산업체에 파고들어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과학기술을 속속 본국으로 빼내가고 있다. 미국 각처에 흩어져있는 1천41명의 소련관리 중에서 3백50명이 스파이다. 레이건행정부는 이같은 KGB의 암약에 대처하기위해 내국인사찰법안까지 마련했다. 과연 KGB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의 활약은 어떤것인지 近着 뉴스위크의 特輯을 통해서 알아본다.

■深刻한 스파이浸透

과거의 스파이들은 추리소설에나 등장하는 전형적인 스파이들과 흡사한데가 있었다. 험악하게 생긴 얼굴에 목이 굵고 주먹이 크며 대부분 금이빨을 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이상한 옷차림을 한 험상궂은 사나이―. 그러나 오늘날의 스파이는 전혀 다르다. 너무나 정상적이며 오히려 일반인보다 세련된 몸가짐을 하고 있다. 특히 KGB(소련비밀경찰)의 스파이들은 소련사회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로 대학에서 과학이나 어학계통의 교육을 받고 모종의 교양교육까지 마친 톱클라스의 신사들이다.

현재 미국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스파이가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이 서방 초강대국들과의 끝없는 싸움에서 가장 첫손 꼽는 武器가 되고있다.

『이들 스파이들의 위협은 지난 10년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합니다』 FBI의 정보담당부국장 에드워드·J·오말리는 이렇게 현재의 스파이전의 중요성을 밝히면서 이에 대처해 FBI의 방첩활동도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高位관리 車內전화도 盜聽
최신核潛艦청사진도 探知

그러나 미국의 다른 정보기관에 있는 관리들은 워싱턴의 고위관리들이 소련의 간첩활동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KGB가 미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편리한것은 미국이 開放社會라는 점이다. FBI의 자체평가에 따르면 소련이 입수하는 정보의 90%정도는 힘들이지 않고 얻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비밀문서화되지 않은 각종 기록들, 산업이나 무역을 주제로 한 수많은 세미나들, 산업기술에 관한 각종 출판물들 모두가 다 좋은 정보자료가 되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간행되는 주간지 「飛行·宇宙工學」이란 책의 경우 출판되는 즉시 모스크바로 직송되는데 그 週의 이슈가 되는 기사는 수송되는 비행기속에서 이미 소련어로 완역된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10%의 정보가 KGB요원들의 비밀활동을 통해서 수집되는데 이것들이 모스크바로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되는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 각처에 있는 소련시설물에는 고도로 복잡한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사적인 전화내용으로부터 라디오 송신내용까지 탐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고위관료간의 대화는 물론, 톱 시크릿(1급비밀)에 속하는 최신무기의 청사진까지가 이들의 전자장치에 걸린다고 한다.

얼마 전엔 최신무기인 트라이던트잠수함의 설계도가 주요하청업체간에 사진전송 도중 소련정보망에 걸려 인터셉트당한 일도 있다. 지난 5년간 미국의 국가기밀을 캐낸 소련KGB의 드러매틱한 활약이 대대적으로 신문의 머릿기사를 장식한것만 봐도 이들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증명되는 셈이다.

77년 크리스토퍼·보이스와 앤드류·리는 미국첩보위성에 관한 데이터를 팔아온 혐의로 구속되었고 美육군암호전문가였던 조지프·헬미히는 암호에 관한 정보를 KGB에 팔았다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소련의 마수는 이에 그치지않고 최근엔 그 수법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교묘한 수법으로 합법적인 기업체를 설립,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컴퓨터부속품, 레이저부품에서 초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소련으로 모두 반출해가고 있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FBI의 고위관리인 에드거·베스트는 『우리는 우리끼리 과학전쟁을 벌이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애써 개발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훔쳐내고 있으니까』라고 소련의 첩보활동을 비꼬았다.

침투는 레이건행정부에게 있어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다.

레이건정부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재빨리 과학분야와 산업기술분야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는데 예를 들어『가벼운 입은 배를 침몰시킨다』는 고전적 격언을 인용, 수출품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계곡에 있는 중공업단지에 비상을 걸고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보수파 지지자들중 많은 이들은 좀더 광범위한 강경조치를 취할것을 바라지만 미국시민에 대한 CIA의 감찰권은 의회에서 거부당했다.

한편 미국정보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베테랑요원들은 자신의 그릇된 인식 때문에 스파이 감시업무가 잘못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있는 소련대사관의 전자도청장치(圓內).

『KGB요원들이라고 키가 특별히 큰것은 아니다』 은퇴한 CIA요원인 벤저민·페퍼의 주장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키, 똑같은 체중, 똑같은 피부빛깔을 갖고있다. 그들이 뛰어나게 키가 크리라고 상상하는데 우리의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파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따끔한 시사이다.

그럼 과연 KGB란 무엇인가. 소련말로 Komitet Gosudarstvenoi Bezopasnosti (국가안보위원회)의 약칭이다. KGB는 미국의 FBI·CIA와 첩보부, 각종 군정보기관의 기능을 모두 합친 것이다.

미국인들은 KGB의 제1의 적이 미국인 자신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련국민들도 역시 KGB의 큰 관심대상이 되고있다.

예를 들어 政治局 위원인 유리·안드로포프가 이끄는 현재의 KGB내의 5천명 요원중 반이상이 소련내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인 第5局에 소속되어 있다.

科學技術 90%는 出版物통해
合法가장 超精密부품 搬出도

KGB는 모스크바의 제르진스키 광장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네개의 커다란 局으로 조직되어있고 이외에 7개의 독립된 局과 수개의 독립部를 갖고있다. 각 부서는 어떤 형태로든 소련국내치안에 관여하고있다. 이중 단지 세개의 부서만이 美國과 美國시민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미친다.

KGB의 第1局은 해외에 파견되어있는 스파이들을 조정하는 임무를 띤다. 이 局안의 第1部가 미국과 캐나다를 담당한다. 이들의 임무는 이너설「T」와「A」로 불리는데 「T」는 미국의 산업기술을 빼내는것이고「A」는 나토동맹국에 거짓정보를 흘림으로써 정부를 전복시킨다는 것이다. 독립부서인 제8局의 요원들은 미국에 설치된 시설들을 통해 전자도청장치를 작동시키는 임무를 띠고있다.

■잠입과 활동

지난 연초에는 제2국의 요원들이 美육군관계의 일로 소련을 방문중이던 홀부르크 국무장관을 약물로 중독시켜 매수하려했던 일도 있다.

美國에 있어 KGB의 활동은 닉슨의 데탕트時代이래로 급격히 활발해졌다. 데탕트정책은 외교면에서 또 문화나 무역의 교류면에서 그 문을 활짝 열어놓기 때문이다. 그런데

KGB란?

全知全能과 無所不在―이것이 바로 소련의 비밀경찰조직인 KGB가 국내외에서 치밀하게 구축해놓은 이미지다. KGB―이 세 글자는 가까운 친구에게조차 숨을 죽이고 이야기해야 하는 공포의 대명사로 소련에서는 통하고 있다.

소련국민들은 모두가 자기가 사용하고있는 전화가 KGB에 의해 도청당하고있다고 믿고 있으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

소련에서는 입밖에 낼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같은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해야만 할 경우에도 조그만 종이쪽지에다가 급하게 이야기할 내용을 적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는 즉시 이 종이를 찢어서 태워버리고 만다.

소련국민들은 단지 KGB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친척들의 이야기를 다반사로 알고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오직 KGB만이 알고 있을뿐이다.

KGB본부인 루비양카는 크렘린 근처 혁명의 광장밖 마르크스가에 자리잡고있는 노란색 건물로서 당당한 위용을 과시하고있다.

노란색 건물에는 아무런 간판도 없으나 이 건물에 이르는 도로는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러시아워에도 항상 텅텅 비어있다.

루비양카를 모르는 소련국민은 거의 한사람도 없다. 모든사람들은 루비양카가 자체내에서 마음대로 이용할수있는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것이 일반국민들이 알고있는 전부이며 그외의 사실은 온통 미스터리에 싸여있다.

全知全能·無所不在의 공포의 대명사격
소련국민 5명중1명은 그들의 끄나불

풍문에 따르면 소련국민5명중1명꼴은 KGB에 협력하고있는 사람들이며 모든 사람들은 KGB가 모르는 비밀은 하나도 없는것으로 믿고있다.

일부사람들은 소련국민들이 관료주의적 병폐를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너무 쉽사리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경향이 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KGB가 보유하고 있는 파다한 자료가 반드시 비밀만은 아니라는 조용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련정부의 입장에서는 KGB의 신화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보존돼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다.

최근 소련정부는 KGB를 찬양하는 내용의 많은 홍보영화·책자들을 만들어냈으며 잡지들에 KGB를 칭찬하는 글들을 대거 싣기도 했다.

◇KGB의 미국에서의 암약상을 특집으로 다룬 뉴스위크誌의 표지.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있는 것이 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아의 주말특집판에 실리는「체카요원들이 말하는 그들의 업무」라는 제목의 정기칼럼이다.

이 체카라는 어휘는 사보타지와 반혁명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설립된 비상위원회인 혁명체카에서 따온것으로 KGB요원을 체카요원으로 부르는것은 KGB를 체카의 직접적인 후계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체카를 오늘날의 KGB와 연결시키는 일은 쉬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시대를 감과한채 체카와 현대의 KGB를 직결시키는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련의 비밀기관요원들을 오늘날의 경찰로서 부각시키는 임무를 띠고있는 KGB의 홍보요원·작가·배우·무대및 영화감독들의 목표는 바로 스탈린 주의가 지배했던 암흑기와 니키타·흐루시초프지배기간을 대내외적으로 은폐하고 현 레오니트·브레즈네프 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의 전성시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現KGB위원장은 정치국원 유리·안드로포프로 일부 소련전문가들은 그를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보고있다. 안드로포프의 오른팔이며 KGB의 2인자는 브레즈네프의 처제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세묜·츠비군이다.

츠비군은 KGB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 인물.

츠비군은 소련의 인기잡지인「오고니오크」에 연재된 2차세계대전기간의 소련첩보기관 활동에 관한 책을 저술했고 9월에는 공산당이론지「코뮤니스트」에 KGB에 관한 평론을 기고하기도 했다.

■가벼운 입들

현재 계속되고있는 소련의

[illegible] 미국에서 활동중인 [illegible] 소련인들의 35%이상이 KGB나 GRU(소련군 정보기관) 요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중에는 소련항공사인 에어로플로트나 소련관영통신인「타스」社의 고용인들까지도 끼여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에 상주하는 1천41명의 소련인중 3백50명정도가 스파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종전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물론 이 숫자에는 KGB에 동조하는 非스파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소비에트블럭(동구권)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파견된 외교관이나, UN대표도 포함되지 않으며 美國內 대학에 유학중인 수백명의 동구권 학생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현재 5천이상의 소련여행자들이 미국을 자유롭게 여행중이며 최근 몇년간 13만명의 동구권 국민들이 미국에 이민와 살고있다.

KGB요원들의 주요활동무대는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등지인데 이곳의 소련시설물들은 전자감시기능을 최대로 발휘할수 있는 곳을 골라 설치되어 있다.

[illegible] 그런가하면 [illegible] 버지니아에 있는 CIA의 본부시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또, 체사피크만에 있는 소련「레크리에이션단지」는 애나폴리스의 주요 마이크로웨이브중계소와 거대한 군사통신시설을 바로 곁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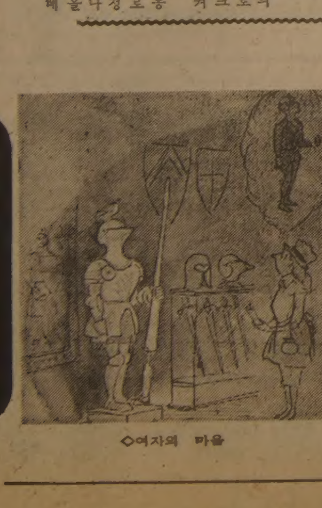
뉴욕 리버데일에 있는 소련인거주지역의 건물 역시 전자장치를 최대한으로 작동시키고 있는데 이 건물의 위치는 미드타운맨해튼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서 뉴욕의 통화지구에 관한한 市民들간의 사적인 전화내용까지도 모두 도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도 소련영사관이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처의 실리콘계곡과 원자잠수함이 있는 메어리아일랜드해군기지를 표적으로 한 것이다. KGB가 이런 좋은 전진기지에 배치하는 요원들 역시「The Cream of the Crop」(최상의 인물)이라고 해어도·가드너는 말한다.

◇KGB요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외국에 밀파되기 직전에 「너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할수 있느냐」는 최종 테스트를 받고 있다.

(다음주에 계속)

해외 걸작 만화


◇여자의 마음

"미련한 아빠의 교육"
◇"저 그림자가 바로 토끼란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234>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CHANCES ARE SLIM.

주말에 part time으로 우리집 잔디를 깎으러 오는 Billy라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에게 하루는 What are your chances of getting into an Ivy League college?라고 물어보았더니, Chances are slim.이라고 대답하였다.

Ivy League란 Havard, Yale, Princeton 등의 동부 명문대학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래된 대학 건물이 Ivy (담쟁이 덩굴)로 싸여 있다고 해서 유래된 것이다.

「동부의 일류 대학에 진학할 만한 확률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Billy는 「가능성이 거의없다」는 뜻으로 Chances are slim.이라고한 것이였다. chance란 「승산」,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능성이 많다」는 Chances are good.이라고 하며, 「승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Chances are fair.라고 한다.

교통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에게 What are his chances?라고 했다면 「그가 살아날 가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라는 말이고, 대답으로 Chances are good.이라고 했다면 「가망이 많이 있다」는 말이 된다.

A : What are your chances of getting into Harvard?
B : Cances are slim.
A : I hear those Ivy League Colleges are tough to get into.
B : I know, I'd have a better chance at the state university.
A : Sure. It's not a bad school, either.
B : I'd rather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A : 하버드대학에 진학할가망이 어느정도있으세요?
B : 거의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A : 그런 동부명문대학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읍니다.
B : 알고있어요. 주립대학에는 더 쉽게 들어갈수있을것같습니다.
A : 물론이지요. 나쁜학교는 아니니까요.
B : 저는 차라리 조그만 연못의 큰 고기가 되겠어요.

※I'd rather be a big fish in a small pond: 용의 꼬리가 되느니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겠다는뜻.

WHAT'S ON YOUR MIND?

필자가 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를 강의 하던 때의 일이다. 학생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커녕 머뭇거렸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것 같기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What's on your mind?라고 질문하였더니 I'm sorry sir, but I'm just worried about the exam. (죄송하지만 시험에대해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같이 대화도중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하는 표현이 What's on your mind?이다.

out of mind란 글자 그대로 「정신 나갔다」라는 뜻이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 영화 구경을 가자는 친구에게 「정신 나갔니?」라는 경우에 Are you out of mind?라고 한다.

또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친구에게 「남의일에 참견말라」 「당신일이나 참견하라」라고 할 때도 mind를 사용하여 Mind your own business. 하면 된다.

A : (Husband to Wife) You've told me three times that Jane bought a beautiful new mink coat.
B : Well, it normally sells for $1,000, but she picked it up for $750.
A : What's on your mind? You have a mink coat!
B : Yes, but it's so old. I hate it!
A : I think it still looks good on you.
B : That's because you're not a woman!
A : (남편이 아내에게) 제인이 예쁜 새 밍크코트를 샀다고 나에게 세번이나 이야기했지 않소.
B : 보통 1,000불 짜인데 750불에 깎아서 샀대요.
A : 무슨 엉뚱한 생각을 하는거야? 당신에게 밍크코트가 있잖아.
B : 그래요. 그렇지만 너무 구식이라 보기도 싫어요.
A : 내 생각에는 당신에게 아직도 그 옷이 잘어울리는것같은데.
B : 그건 당신이 여자가 아니기 때문이예요.

※pick it up : 그 가격에 (깎아서) 샀을때 사용.
look good on : 잘 어울린다
<발음>hate it : hate 의 t 다음에 모음인 i 가 왔기때문에 「릿」 이아니고 「릿」, 결국 「헤이릿」 으로발음됨.

본 칼람 남당 「민병철 생활영어」책은 이중언어 교육처및 교포들의 영어교육처수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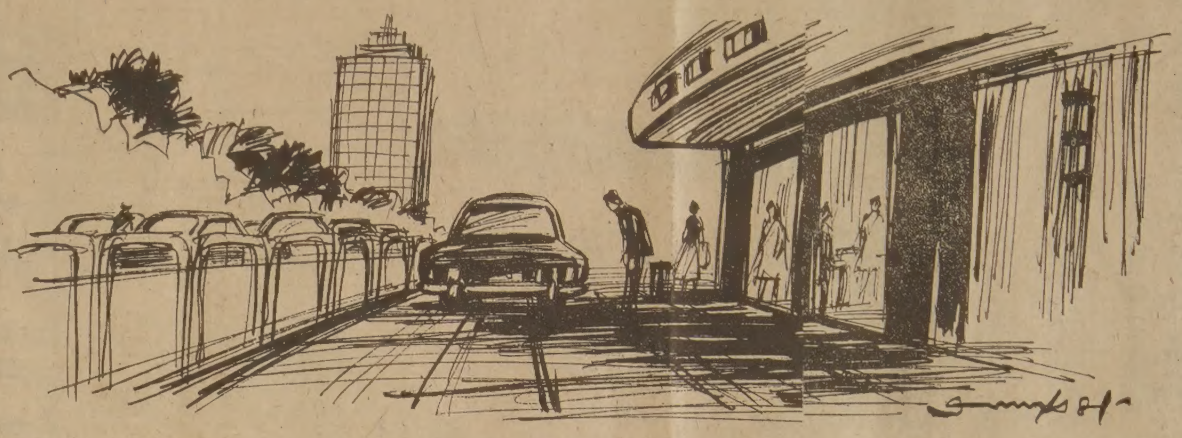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2권용(38불)3권용(38불)
비디오 : BETA(80불)
VHS(65불)
※U. 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畫

㊼52



김갑산 회장은 역시 거물이었다. 내 상상력을 초월한 거물이었다. 죽음을 눈 앞에 두었다고 해서 바동거리거나 초조해 하지 않았다.

『회장님, 인간의 목숨이란 이 우주 전체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회장님은 돈 버시는 일에는 탁월한 실력자였지만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는 인색한 노랭이였읍니다. 이제부터 더 사셔서 그 일을 해야만 김갑산 회장님은 가치있게 살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면전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느낀대로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차라리 애원하고 싶어졌다. 그가 더 오래 살아서 그동안 번 돈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인간적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일세. 유언장을 봐서 자네도 알겠지만 나, 그렇게 옹졸하고 내 입만 아는 사람은 아닐세. 사회에 환원하는 일은 이미 유언장에 상세하게 해놨었네. 그게 바뀌었다니 다시 정리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내 자식들에게도 좀 떼어주고… 그게 애비된 도리 아니겠는가 말일세. 사위 자식도 자식인데 이제 와서 그것을 뒤집어놓아서 못된 애비 되란 말인가.』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회장님 목숨과 재산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을 수 없읍니다. 회장님이 참으신다면 저 혼자라도 캐내서 폭로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아, 자네 마음 모르는거 아닐세. 좀 더 살아보게. 그때 가서 내마음 알게 될 걸세. 자네도 잊어버리게. 내 일을 도와주기나 하게. 늙은이가 이렇게 부탁하잖나.』

『회장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밉지도 않습니까? 측근의 사람들도 바꾸셔야 합니다. 고 의사도 매수된 사람입니다. 운전수도, 집안 식구들도 모두 말입니다. 회장님이 귀여워 하는 세희(世姬)라는 여자도 말입니다.』

『자넨 너무 많이 아는구만.』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획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빼돌린 재산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알고 있네.』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단 말입니까?』

『모두 내 자식들 아닌가.』

『아버지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게 자식이란 말입니까?』

김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담배 한대 더 주게나.』

나는 담뱃불을 붙여 주었다. 김회장은 내 어깨를 잡고 말했다.

『나를 도와주게. 내가 빨리 정리해서 유언장을 공개해 버리면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다 재산 때문에 생긴 일, 내가 탁 터놓고 공개해 버리면 더는 어쩔 수 없잖은가 말일세.』

『그야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내가,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걸세.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다른 자식들처럼 재산싸움하게 한대서야 되겠나.』

『전 이해할 수 없읍니다.』

『세상은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닐세. 느껴야 하네. 자네가 나타나서 나를 한번 더 깨우쳐 준 건 하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은 걸세. 그러니 나를 도와주게나. 당분간만 도와주면 되네. 애초 자네를 파격적으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였다네. 늙으니까 점장이처럼 그런 데에만 눈을 뜨나 보더구만. 어쩔텐가? 내 수행비서 한번 안할라나? 싫다면 할 수 없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렇게 담대한 늙은이의 어디에서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흡인력이었다. 그가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나 재수가 좋은 때문만은 결코 아닌 것 같았다.

『우선 수행비서는 하겠읍니다. 이건 내 직성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회장님이 너무 원하시니까 마지 못한 겁니다. 제 생각엔 당장 박살을 내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때 주먹이 운다고 하더구만. 자네답네 그려. 내일 아침부터 어려운 일을 좀 맡아주게. 내가 알아서 인사조치를 할 테니까.』

지난줄거리

다혜와 약속대로 길고 긴 입맞춤을 하고 돌아섰지만 욕망의 불을 끌수는 없었다. 총찬은 그 더러운 욕망을 거리의 여자에게 팔아치운다. 그리고는 T그룹의 암행감사관으로 일하지만 방해공작으로 임무수행을 저지 당하기만 한다. 결국 총찬은 비서실장과 기획실장의 무시무시한 음모와 죄악상을 눈치채고 김회장에게 모든것을 폭로한다. 그러나 김회장은 고개를 흔든다.

눈치 채게 해선 안돼, 이제부터 우린 명배우가 돼야해
세상 쥐고 흔들려면 능구렁이 담 넘어 가는걸 배우게

김회장은 일어서려고 했다. 내가 부축하자 그는 가볍게 나를 밀었다.

『괜찮아. 나 김갑산이라네.』

『귀찮아서 데리고 다니며 버릇을 가르치겠다고 해주세요.』

『자넨 내 머리만큼 도는군.』

김회장은 성큼성큼 앞서 나가며 도청장치와 감시망을 그냥 두라고 일렀다.

『눈치 채게 해선 안되네. 보통때처럼 표 안나게 해야 되네. 유언장을 공개할 때까지는 말일세. 이제부터 우린 아주 연기력 좋은 배우가 되는 걸세. 자네라면 믿고 연극배우 한번 해볼수 있겠구먼.』

『각본을 짜야잖습니까?』

『그건 눈치로 때려잡으면 되잖는가. 우린 배가 맞고 눈이 맞는 사내 아닌가.』

『쓸만한 애들 내여섯명만 취직시켜 주세요. 눈치 채지 않게 운전사와 집안 경비, 비서실과 기획실 정도에 배치하게 해주세요.』

『자네 만큼 나랑 배 맞는 사내가 또 있나?』

『제 쓸만한 친구들이 있읍니다. 걔들은 아부라는 것만 배우면 이 세상 쥐고 흔들 애들입니다.』

『자네도 세상 쥐고 흔드려면 아부와 처세와 능구렁이 담 넘어 가는걸 배우게. 자네 배짱이면 그런 것만 배우면 될걸세.』

우리는 아파트 마당으로 걸어가면서 껄껄거리며 웃었다. 반백의 정정한 늙은이 걸음걸이였지만 나이를 속일 수 없는 근육이었다.

『자서전 한권 쓰시죠.』

나는 부담없이 이렇게 말했다.

『사기꾼도 자서전을 써야하나?』

『회장님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야말로 최대의 사기꾼일세.』

그러면서 또 한번 그는 호탕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애들처럼 잡고 흔들었다.

『우리 세희네 집도 도청장치 됐던가?』

『그건 확인되지 않았읍니다.』

『확인해보고 그건 좀 고장내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희는 김갑산회장의 애첩 이름이었다. 명문 여자대학출신의 미모를 갖춘 여자였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어떤 여자인지 정확하게 조사할 틈은 없었지만 김회장이 제일 아끼고 있는 여자 가운데 한사람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사위나 자식들에게 세희와의 관계가 도청된다는 건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었다.

『한방에 처녀 회춘술이란 게 나오더군요. 정력적으로 일하시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람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근하게 세희란 여자를 버리라고 종용했다.

『사람의 정은 그런 게 아닐세.』

그는 한마디로 내 얘기를 끊고는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 세웠다.

『지금부터 자네와 난 배우일세. 명연기를 해보자구.』

『예.』

나는 쉽게 대답했다. 그의 말처럼 통배가 맞는 것 같았다. 거물다운 배짱과 거물다운 행동에 내가 빨려들어가는 것 같았다.

누구든 무슨 짓을 하든 그가 종사하는 분야에 최고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운이 좋아서거나 머리가 좋아서만 이루되는게 아니라는 걸 나는 배우고 있었다. 누구든 최고가 된다는 건 그만한 인내와 투쟁, 그만한 실력과 피나는 노력, 그만한 고통과 배짱이 있기 때문이란 걸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최고가 된다는 것, 왕초가 된다는 건 그냥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지는게 아니었다.

뭔가가 있는 것이었다.

김갑산회장만 하더라도 나는 평소에 돈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운이 좋아서 돈을 쥐게 되었고 이재는 밝을테니까 망할 수 없는 경제계의 거물로만 알았다.

가까이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만한 뭔가가 있고 그만한 흡인력과 역량과 그만한 인간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내는 거라고 했을때 나는 어린 마음으로 침을 뱉어주고 싶었다. 최고나 왕초의 그늘에서 떡고물이나 주워먹는 수작이라고 치부했었다.

거물. 왕초. 최고.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걸 배우며 나는 내 자신의 소심함을 미워했다. 나는 주머니 술수에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정신은 아직도 가난애처럼 미숙하기 그지 없었다. 언제고 최고가 되고 왕초가 되고 황제가 되겠다는 내 마음이 언젠지만 이렇게 하찮은 돈벌레 앞에서 기가 죽다니.

택시로 H호텔 뒷문에서 내린 우리는 코피숍 복도를 지나 다시 정문쪽 로비로 나갔다. 김회장의 수행비서가 초조한듯이 입구에 서있었다.

『가자.』

김회장은 표정없이 이렇게 말하고 올라 탔다. 내가 꾸벅 인사를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말 명심해라. 그리고 내일부터 날 따라다녀라. 젊은 놈이 의기소침하면 안돼.』

일부러 엄하게 말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 내게도 왕초가 될 수 있는 자질을 주세요. 나는 왕초가 되고싶단 말입니다. 그게 내 꿈이고 희망이란 걸 아시잖아요.

어려서 난 동네 꼬마대장이었읍니다. 조금 커서는 골목대장, 더 커서는 유내의 두목이었고 대학에 들어가선 대학의 왕초였잖습니까.

정 안되면 어디 외딴 무인도라도 하나 떼어 주세요. 말 잘듣는 녀석들만 골라가지고 가서 왕관을 만들어 쓰고 황제노릇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다 죽긴 싫어요.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도 좋아요. 까짓거 사내로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대로 해보고 죽게나 해주세요.

내 성질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기다리지 말고 시집가란 말야
난 돈벌레 영감밑에서 몸종 노릇 하기는 죽어도 싫어

고등고시 준비 때문에 암자에 올라간 명식이의 짐만 챙겨서 다락 속에 넣고 내 짐은 지하실에 내려다 두었다. 김회장의 수행비서 노릇을 하려면 당분간 은주 누나와 헤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은주 누나는 당분간만 헤어지는 거라고 해도 못내 섭섭해 했다.

『누나, 이제 술을 바람이나 좀 피우라구. 쓸만한 사내가 아직은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홀아비는 혼자 살아도 과부는 혼자 못산다니까. 일찌감치 맘 다져먹고 시집 가란 말야.』

『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은주 누나는 내 팔뚝을 꼬집었다.

『나 없는 사이에 맘 놓고 골라야 돼. 젊은 청춘 아깝게 썩히지야 남는 건 후회 뿐야.』

『네가 뭘 안다고 지껄이니.』

『나도 매형 소리 좀 하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혼자 청승맞게 사는 거 뵈기두 싫어.』

나는 밤 늦게까지 은주 누나에게 시집 가라고 졸랐다. 은주 누나는 싫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친정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 여러번 드나들었지만 누나는 자꾸 미루기만 했었다.

누나는 찬성도 반대도 없는 애매한 대답만 주절주절 늘어놓았다. 그것이 여자의 심리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만 종용했지 시원스런 대답은 기대하지도 않았다.

다혜는 내 전화연락으로 당분간 만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 직장운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자주 못만나게 되는 것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척을 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김회장과 나를 도와줄 만한 녀석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었다.

넘치 형은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그런 큰 회사 근처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내가 여러번 사정을 해도 넘치 형은 거절했다. 나는 넘치형 정도의 사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이상의 실력자들이 있겠지만 세파에 물들고 못된 일에 찌든 사내들을 불러들일 수는 없었다.

재간 있고 의리 있는 녀석들이 이력서를 받아들고 김포로 달려갔다. 몇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넘치 형이 김회장 곁에 바짝 붙어주기만 하면 웬만한 사람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형, 거물 하나 살리고 봅시다. 내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하겠읍니까.』

『난 사자 몸종 노릇하기 싫다.』

넘치 형은 한사코 반대했다. 그도 감정적으로 부자가 싫은 모양이었다. 김갑산 영감을 단순한 돈벌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했다.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다.

『꼭 내가 나서야겠니?』

『그러니까 찾아온 거 아닙니까, 형, 한번만 봐줘요.』

『좋다. 한번 부딪쳐 보자.』

『지금 당장 올라가죠.』

『여기 정리나 좀 하고 가자. 나만 믿고 사는 애들인데…. 호적초본에도없는 월급쟁이 되나보다.』

『괜찮은 거 한건 하고 죽어야죠. 형도 여태 그냥그냥 살았지 뭐 뾰족한 일 한 거 없잖아요.』

『내가 뭘….』

넘치 형은 말꼬리를 흐렸다. 넘치형은 나보다 차라리 나은 실력자이면서도 아직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내놓고 자랑할게 없었다. 한 지역을 맡아 운영하는 지역의 왕초로 군림한 뿐이었다. 그에게 좋은 일을 할 기회도 물론 주어지지 않았었다. 그저 먹고 살고 애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대우받는 존재일 뿐이었다.

산에서 내려온 뒤에 어째서 그런 길로 들어섰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넘치 형의 지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회사로 달려갔다.

『오늘부터 수행비서를 하시오.』

비서실장이 근엄하게 말했다. 나는 그 근엄한 표정을 한대 쥐어박고 싶었다. 그러나 김갑산 회장과의 연극을 위해 마음을 지그시 누른 채 업무인계를 했다. 내 업무인계는 간단했다. 서류작성만 해놓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수행비서·자리는 인수받을 일이 많았다. 김갑산 회장의 자질구레한 사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회장실 안의 책상이 바로 내 자리였다. 내 옆에는 여비서가 한사람 있어서 잔일은 그녀가 맡아주었다.

전화며 집무실의 대화가 모조리 도청되고 있는 방에서 근무한다는 건 촉각이 서서 못견딜 일이었다. 그렇다고 도청장치를 갑자기 없애서 의심을 사게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넘치 형은 운전사로 취직이 됐고 다른 애들은 대학졸업장과 그 대학의 총장 추천서를 미끼로 내가 계획했던 자리의 말단 사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넘치 형과 같은 차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내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었다.

<도청장치가 갑자기 고장나는 수도 있겠지.>

김회장이 이런 쪽지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신호를 보냈다. 애들이 도청장치를 끊어놓도록 훈련이 되어 있었다. 도청장치가 없은 것을 확인한 김회장은 내게 넌지시 말했다.

『오늘 밤에 황변호사 만나게 해놓게. 서류 준비하고 녹음할 것도.』

연출만의 공작이었다. 김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느긋하게 행동했지만 나와 넘치 형은 단 1초라도 긴장을 풀지 못했다.

도청장치가 되는 곳에서 눈치로만 행동한다는게 보통 일은 아니었다. 피를 말리는 일이었다. 김회장은 평소처럼 아무 스스럼 없이 행동하고 말했다. 그것은 내 눈에 불가사의하게 보였다.

역시 그는 거물이었다.

일단 퇴근을 한 김회장은 간편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우리는 집 뒤켠에서 택시를 타고 황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교외로 나갔다.

황변호사 일행은 우리가 말한대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다. 김회장은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고는 녹음 테이프에 자신의 목소리를 상세하게 담았다. 황변호사가 뒤처리를 하는 동안 김회장은 나와 넘치 형의 손목을 힘주어 잡았다.

『자네들 덕분에 내 할일을 이제야 했네. 겨우 이제 말일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재산분배나 사회환원의 차원이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재산의 반은 사회로 되돌려 주었고 나머지 반도 공평하게, 자식들 입장으로 보면 인색하기 그지 없도록 작성되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차안에서 계속침묵으로 일관했다. (다음회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경찰署長·稅務署課長이상

公職者 재산등록案 확정

國會 6人小委

國會·大法院·政府에 倫理委

은닉하면 法務部에 調査의뢰

국회內務委의 公職者 倫理法案심사 6人小委(위원장柳尙昊)는 2일 재산등록의무자를 정부原案에서 경찰總警과 5급이상의 稅關및 稅務공무원으로 확대한 修正案을 확정했다。이에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당초 4천9백명에서 9백명이 늘어난 5천8백여명에 이르게됐다。

非公開원칙…就業制限위배에 罰則신설

小委가 마련한 이 수정안은 오는7일 열리는 내무위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를거쳐 정부에 이송되며 오는83년1월1일부터 실시된다。

이修正案은 국회 대법원 정부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 등록기관의 長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때 관할공직자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하고 군인또는軍務員의 경우는 국방장관의승인을 얻도록 했다。

한편 조사의뢰를받은 법무장관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실시케하고 이 조사에는 刑事訴訟에관한 法令중 수사에관한 규정을 準用하되 법죄수사와는 달리 人身구속은 하지않도록했다。

등록재산의 공개여부는 정부原案대로 비공개를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은 이를 공개할수 있도록 했다。

이 修正案은 就業제한규정을 위배한 退職공직자에 대해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하는 벌칙규정을신설했다。

공직자윤리법안의 修正案 골자는 다음과 같다。

◇등록의무자=▲政務職공무원▲3급이상공무원▲법관·검사▲장관급장교▲총학장및 교육감▲總警이상의 경찰공무원과消防監▲시장·군수·구청장및 경찰서장▲5급이상의 稅關및 세무공무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임원

◇등록대상 재산범위=▲본인▲배우자▲본인의直系尊卑屬(出嫁한 딸은 제외)

◇등록재산의 심사·조사기구=국회 대법원 정부에 공직자윤리위를 신설하여 등록기관의長이 재산은닉 또는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자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때 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함。

◇등록재산의 공개여부=非공개를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가능。

民正、廢棄방침 政治規제解禁案

民正黨은 民韓黨의 정치被규제자解禁건의안이국회에제출되면 이를 운영위에 상정、토론을 거쳐 폐기시킬 방침이다。

李鍾贊총무는2일『현시점에서 정치 被규제자의 解禁이 어떤 결과를 초래케 될것이라는 점은 自明하지않느냐』고 반문한뒤『운영위에 이건의안이 회부되면 이를상정、民正黨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총무는 柳致松民韓黨총재를 만나 民韓黨당무회의가 정치피규제자 解禁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한 분위기에대해 설명을듣고 이같은民正黨의 확고한 방침을 밝힌바있다고 밝혔다。

韓·말레이지아航空회담 決裂

韓·말레이지아 양국은 지난달 30일과 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항공회담을갖고 말레이지아航空(MAS)의 서울運航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했으나 양국간의 異見조정에 실패、追後 외교경로를통해 再論키로 했다。

지난 9월의 콸라룸푸르회담에 이어 再開된 이번 서울회담에서 양국은 서울에 就航중인 MAS航空의 部品에 대해 상호最惠國대우를 적용해 關稅의 80%線까지 免稅해주며 이항공의 販促運賃을向後6개월까지 허가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승객탑승허용한도문제와 관련、말레이지아측이 현재 便當65명線을 대폭 늘려줄것을 요구한데대해 한국측은 難色을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修正된 새해豫算 (단위·백만원)

區分 (歲入)	82예산(안) 金額	82예산(안) 구성비	修正 삭감액	修正 增額	修正예산액 金額	修正예산액 구성비	81년對比增加率
1, 內國稅	5,641,453	58·8	68,953	9,898	5,582,398	58·3	21·8
2, 關稅	1,236,088	12·9	—	—	1,236,088	12·9	30·2
3, 防衛稅	1,367,030	14·3	10,631	8,959	1,365,358	14·3	32·6
4. 전매익금	760,000	7·9	—	—	760,000	7·9	11·8
5. 歲外收入	385,804	4·0	—	10,600	396,404	4·1	9·4
6. 교육세	205,186	2·1	—	32,690	237,876	2·5	—6
合計	9,595,561	100·0	79,584	62,147	9,579,124	100·0	19·1

區分 (歲出)	82예산(안) 金額	82예산(안) 구성비	수정 삭감액	수정 增額	修正예산액 金額	修正예산액 구성비	81년對比增加率
1, 防衛費	3,299,106	34·4	532	—	3,298,574	34·4	21·3
2, 敎育費	1,958,421	20·4	9,746	40,690	1,989,365	20·8	35·8
3, 사회개발	598,705	6·2	16,359	1,736	584,082	6·1	26·8
4, 경제개발	1,696,349	17,7	49,355	40,697	1,687,691	17·6	13·0
5, 일반行政	1,006,287	10·5	22,219	21,286	1,005,354	10·1	3·0
6, 지방재정교부금	719,000	7·5	—	—	719,000	7·5	38·3
7, 債務상환등 예비비	317,693	3·3	23,635	—	294,058	3·1	△40·0
合計	9,595,561	100·0	121,846	104,409	9,578,124	100·0	19·1

豫算 政府이송

9조5천7백81억 表決통과

國會本會議

국회본회의는 2일하오 9조5천7백81억2천4백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의결、정부에 移送했다。

이날 본회의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9조5천9백55억6천1백만원에서 1백74억3천7백만원을 삭감한 民正黨 修正案을 놓고 贊反토론을 벌인뒤 표결에붙여 在籍의원2백64명중 찬성1백51、반대 1백13표로 통과시켰다。

확정된 새해예산은 당초 정부原案인 9조5천9백56억원에서 5백1억원을 실질삭감했으나 재산세에 부가키로 했던 교육세가 金融·保險業에 부과되는 國稅로 바뀜에 따라 3백27억원의 稅收가일반회계에 轉入(지방재정교부금으로 다시 전출된)되어 外形上의 삭감액은 1백74억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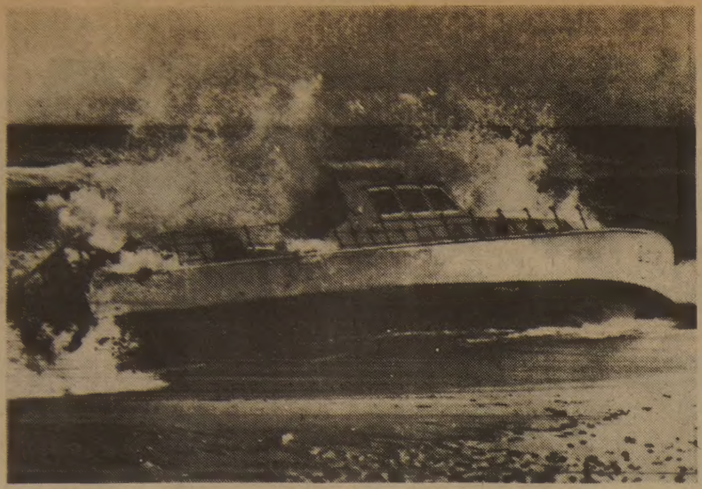
국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本會議를 休會하고 常委를열어公職者 윤리법안등 나머지案件을 심의한다。

"鐵道·遞信料 곧 인상"

尹교통·崔체신 民正黨 政策委에 보고

尹子重 교통부장관과 崔侊洙체신부장관은 2일상오 民正黨정책위 산하 交通分科委에 참석、철도와 대중교통요금및 체신요금의 인상문제를 보고했다。

이날 尹장관과 崔장관은 油價와 전기료의인상으로 철도요금과 체신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한관계자는『금명간 철도와체신요금의 인상이 발표될것으로안다』고 전했다。



◇波濤에 밀려온 警備艇 폭풍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으로 조난어선구조작업에 나갔던 25톤급 경찰연안경비정이 침몰、파도에밀려 주문진항남쪽3백m지점 방파제에걸려있다。【注文津=聯】

救助나간 警備艇 침몰

江陵署 소속 警官·郡직원6명 失踪

漁船SOS 받고…注文津남쪽 防波堤서 船體만 발견

【注文津=聯】미귀한 명태잡이 어선을 구조하러나갔던 연안경비정이 침몰、타고있던 경찰관5명과 군청직원 1명등 6명이 모두 실종됐다。

2일상오9시30분께 승조원6명을태우고 미귀한 명태잡이어선 춘성호(2·9톤·선장 한영봉·44)를 수색하러 나갔던 江陵경찰서소속 연안경비정(25톤)이 강원도명주군주문진항남쪽방파제3백m지점에 반쯤걸려 침몰돼있는것을 이곳을지나가던 어부임병수씨(51·영창호선원)가발견,경찰에 신고했다。

임씨에 따르면 방파제를따라 걷고 있는데 사고 경비정이 방파제에 걸려 반쯤 선체를 드러낸채 침몰돼 있어 달려가 보았으나 배 안에는 구명대 1개만 있었을 뿐 타고있던 경찰관등 구조원들은없더라는 것。

사고경비정은 주문진항 10마일 해상에 명태잡이를 나갔던 충성호가 폭풍주의보가 내렸는데도 돌아오지않자 조난당한 것으로 보고 1일 하오9시30분께 긴급 출동했었다。

한편 1일새벽 4시에 출항한 춘성호도 36시간이 지난 2일 하오4시현재까지 돌아오지않고있는데 이배에는 선장한씨등 선원3명이 타고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경비정이 풍랑을 만나 침몰, 파도에 밀려왔을 것으로 보고 ○○부대소속 헬리콥터 1대와 경비정등을 동원、수색 작업에 나섰다。

1일낮12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동해안에는 4∼7m의 높은파도가 일고있다。

◇실종자명단(6명)

▲김진갑(45·경사·강릉경찰서소속)▲이명철(28·순경)▲진진희(21·전투경찰일경)▲김수만(21·전투경찰일경)▲강정희(21·전투경찰이경)▲김재범(21·명주군수산과직원)

한국일보

533－2361～4

한국貨物船 표류

沖繩남쪽서 21명乘船…救助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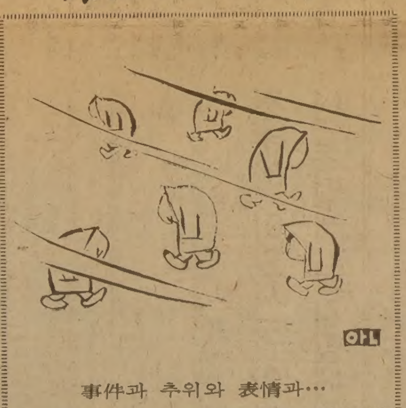
【那覇(오끼나와) 2日AP聯】화물선 크리스탈·스타號가오끼나와의 이시가끼섬남방 7백㎞태평양해상에서 표류중이라고 일본해상구조대가 2일하오 발표했다。

해상구조대는 표류중인 선박위에 7명의 선원이 구조를 요청하고있고 나머지 14명은 선반근처 해상에서 구명보트에 타고있는 광경이 목격되었다고 말했다。

潤相아 잘가거라

◇말없이 모교에 돌아온 李潤相군。서울赤十字병원에서 영결식을 마친뒤 潤相군 유해를 실은 영구차가 1년만에 모교인 京西중학교에 들어서자 운동장에 서있던 학생들이거수경례로 潤相군을 맞아 명복을빌었다。

社会漫評



事件과 추위와 表情과…

地平線

앞으로10년만 있으면 50개도시가 전체인구의 68%를 수용하게 된다고한다。도시별로 보면 서울9백60만명、부산4백20만명、대구2백60만명、인천1백55만명、광주1백30만명、대전이1백24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1백만명이 넘는 도시만 적어도 여섯군데다。▼우리나라 紀元初의 人口가 약3백만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2천년전엔 서울인구의 3분의1정도가 한반도에 넓게 퍼져살고있었다는 얘기가 된다。그런가하면 三國遺事에 나오는 新羅全盛時의 慶州는 17만8천9백46호、한戶를 3∼5명으로 치더라도 지금의 人口는 12만4천명이므로 慶州의 경우는 몇분의1로 人口가 줄었다고 볼수 있다。물론 行政區域이나 統計의 신빙성과 관계되기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는 모른다。強大했던 高句麗의 戶數는 廣開土王(392∼413)때가 21만5백8戶였다고하니 요즘의 인천、광주、대전 인구만도 못했다는 셈이다。▼朝鮮朝에 들어와 형식적이나마 戶口조사가 시행된 仁祖17年(1639년)의 인구는 1백51만1천1백65명、肅宗7년(1681년)엔 6백21만8천3백42명으로 나와있다。그후 2백년동안은 심한가뭄、戰亂등으로 人口停滯期가 계속됐다。李朝末인 隆熙1년(1907년)에 가서야 인구는 9백78만1천6백71명、비로소1천만을 헤아리게됐다。말하자면 74년전의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지금의 서울인구만 했던것이다。일제초기인 1910년엔 1천3백3만、30년엔 2천4만、44년 2천5백12만으로 해방을 맞았다。▼광복후의 南韓人口는 대략 1천6백여만、北韓이 8백80만으로 추정되었는데 38선이 생긴지 4년만인 49년의 南韓은 2천만으로 늘어났다。그후 6·25를 겪은다음 55년의 南韓인구가 2천1백50만、60년엔 2천5백만명에 이르러 南韓만으로도 해방직전의 전국인구수준이 됐다。작년엔 3천7백50만을 넘어 해방이래 약 30년동안에 인구는 거의 2·5배나 늘어났다。지금의 北韓人口를 약 1천7백만명으로 추정하면 南北을 합친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5백만이나 된다。▼李太祖가 漢陽에 遷都한후에도 1백년동안 서울인구는 10만을 넘지않았던것이 지금은 9백만가까운 大都市로 변했다。韓日合邦때 몇만안되던 釜山 大邱 仁川도 1백만을 넘는다。4천만이나 되는 南韓人口의 68%가 50개都市에살게되면 오순도순 文化生活을 함께즐기게돼서 좋은 면도 있겠으나 거꾸로 농촌인구는 줄것이고 人口過剩에 따른 都市公害、주택부족등 엄청난부작용이 따를지 모른다。미리부터 도시환경정비와 人口配置에 신중한배려가 있어야겠다。

중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동주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금년 크리스마스및 새해에는 한국일보 1년 구독권($99)을 만들어 선물 하십시요.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 또는 친지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애인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한국일보는 오직 교민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쉬지않고 봉사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광고부
533·2361

근하신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만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피디 인쇄소
곽호중
전화 : 535－3520

근하신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아
만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로아 안경점
구진모
전화 : 531－2236

주간여성
인기절찬 판매중!
12월6일자

주간女性

—「행복한 孤獨」의 히로인 明石祝子 여사
映畵 6백편 모은 吉重吉씨
턱걸이 30번하는 할아버지
變心애인 찌르고 분신 자살
스타 誕生 夜話 金秋子 편
「가수人氣」투표엽서의 正體
만년 現役 女優 3人의 近況
테마 特輯「배우자의 死別」
교육·文化·오락에 새時代 여는 비디오 全科
修女院서 환속한 시인 吉美子씨의 告白

<탤런트 元美京>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中共 經濟계획은 레이거노믹스 再版

個人인센티브制 도입등에 同質性

豫算·機構축소… 行政개혁도

"일부 지역서 不正만연" 개탄

【北京1日UPI=聯合】중공의 현지도층은 여러가지면에서 레이건美대통령이 하려는것과 똑같은 일을 시도하고있다. 예산삭감이나 관료주의지양, 개인인센티브제도입등에서 양국정부 시책의 동질성이 특히 두드러지고있다.

양국정부는 이념면에서 양극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공수상 趙紫陽이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발표한 경제계획이 레이거노믹스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한 미국인 경제분석가는 중공정부의 경제시책에 논평하면서 『그들(미국과중공)은 전혀 다른방향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려하고있다』고 말했다.

중공경제정책은 요즈음 그역점을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의 통제와 관리쇄신, 인민의 재산증식의욕고취등에 두고있다. 레이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鄧세력도 그들의 과업을 수행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3천9백만 공산당원중 대다수는 당의 역점과업이 관리쇄신보다는 이념추구에 두어졌던 문화혁명(1966~1976)의 와중에 당에 가입했다.

그들이 鄧·胡·趙 3두체제가 추구하는 새로운경향에 위협을 느낄것은 '당연하다.

중공사회에는 현재 『할수있을때 해먹자』는 식의 大儒主義가 만연, 수백만의 관리들이 부패한 행동을 주저치않거나 매우 소극적인 업무자세를 보이고 있다.

趙는 최근 『법령과 관리체계가 불완전하고 지도층이 태만하기때문에 투기·밀수·탈세·횡령·뇌물수수등 여러가지형태의 부정이 일부 지역에서 매우 만연되고 있다』고개탄했다.

趙는 1일 정부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능률을고취시키기위해』 필요한 기구감축을 단행할것 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일부 부서들은 통합될것이며 인원의 최대한 감축과 고위관리들의 폭넓은 대폭경질이 아울러 단행될것이다.

趙는 중공의 경제재조정작업이 최소한 5년을 끌것이며 서기 2000년께나가야 중공인민의 생활이윤택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

中共의 예산적자규모는 미국의 그것에 비한다면 하찮은 것이기도하나 전통적으로 인플레가 파괴적영향을 끼쳐온 나라에서는 가공할파급효과를수반한다.

趙는 금년예산적자가 지난79년도의 1백억달러보다는 훨씬 적은 16억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중공수상 趙紫陽이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개회식에서 연설하고있다. 【北京1日AP聯=聯合】

새로운文革 경고

【北京2日UPI=聯合】당부주석 鄧小平이 이끄는 중공실용주의지도층은 2일 과거 문혁파가 저지른 이념의 오류가 시정되지않으면 새로운 문화혁명이일어날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내부의 적에대한 대체적인 이념전을 전개했다.

鄧의 측근인 수상 趙紫陽이 1일 제5기전인대4차전체회의에서 연설을통해 『부패한 부로조아 이데올로기가 침투하고있다』고 경고한데이어 당이론지 紅旗는 2일 3만단어에달하는 장문의기사를통해 부르조아 급진주의자와 고 당주석 毛澤東에 충성하는 좌익관료들에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내부이념투쟁을 격화시키고 있는듯한인상을강하게풍겼다.

全人代를 兩院制로 改革

中共 명목적議會탈피… 常務委는 줄여

【홍콩1日=聯合】중공은 현재 北京에서열리고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를「구역원」과「사회원」의 양원제로 개혁하고 행정입법권및 행정 감독권을대폭 강화함으로써 현재까지의 명목적 의회에서 탈피, 진정한 의회로 탈바꿈할계획이라고 1일 홍콩의 明報가 중공당서기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신문은 중공이 이계획을 현재진행중인 제5기全人代 제4차회의에서 거론할지 또는 다음 회의에서 토의 채택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공이 양원제를 채택할 경우 구역원이 상원역할을 수행하고 인원수는 약3백명, 사회원은 하원역할로 인원수는 구역원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신문은 설명했다。

양원제는 상호견제와 균형역할로 중공의 각민족및 지방과 각종 직업의 이해충돌로 인한 人民내부의모순을 착실히 해결할수있게 되어 전인대의「고무도장기구」라는 오명을씻고 또한 전인대상무위원회의 약 3백명의 인원도 60~70명으로 대폭 축소하게될 것이라고 이신문은덧붙였다。

당분간은 低成長

【北京1日UPI=聯合】中共재상 王丙乾은 1일 中共이 81회계연도에 약16억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하다고 공개했다.

고 82회계연도에는 이보다 10%증가한 17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면할수 없을 것이지만 공업·농업·개인소득의 분야에서는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王은이날 全人代4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의 군사비지출액이 81년중 또다시 감소, 전년의 1백27억5천만달러보다 30억5천만달러가 줄어든 97억달러였다고 공개했다。

중공은 아직 확정되지않고 있는 경제개발5개년계획(81~85년) 첫해인 올해 지금까지 3%의 경제성장을 이룩한것으로전해졌다。

主席制부활 延期

【北京1日AP=聯合】이번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던 국가주석제 부활문제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전인대상무위 부위원장 彭眞이 1일 밝혔다。

彭은 이날 전인대대표들에게 배부된 보고서를통해 금년에 토의할 예정이었던 국가주석제 부활문제가 부수적인 문제들의 중요성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히고 이문제는 전인대상무위에 상정하기앞서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人民들의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彭은 또 국가주석부활문제를 포함한 중요헌법의 개정문제가 지난해부터 연구검토되어왔다고 말했다。

強壓·不快·어려운말 바꿔

官僚的자세 是正·行政能率化에도 도움

千35개單語 고친「醇化便覽」

▲가급적(可及的)→될수있는대로, 되도록이면▲가리반(×)→중판▲가중(加重)되다→더무거워지다, 더 커지다▲가해(加害)→해를끼침▲각양각색(各樣各色)→여러가지▲각위(各位)→여러분▲간과(看過)하다→보아 넘기다, 지나치다▲간계(奸計)(○)→간사한꾀▲간여(干與)하다→상관하다, 관계하다▲감안(勘案)(○)→참작, 생각▲강권(強勸)하다(○)→강제로 권하다▲강하(降下)하다→내리다▲개과(改過)하다→회개하다, 뉘우치다▲개관(槪觀)해보면→대충 살펴보면▲개전의정(改悛의情)→뉘우치는 빛▲개진(開陳)하다→진술하다▲갱(×)→틀, 간격▲갹출(醵出)하다→내다, 추렴하다▲거마비(車馬費)→교통비▲거중조정(居中調整)→중간조정▲건당(件當)→한건에▲게시판(揭示板)(○)→알림판▲격상(格上)시키다→격을높이다▲격의(隔意)없이→터놓고▲격일(隔日)로→하루걸러▲격하(格下)시키다→격을낮추다▲견양(見樣)(○)→서식, 보기▲결여(缺如)되다→모자라다▲경감(輕減)하다→덜어주다, 가볍게하다▲경유(經由)하여→거쳐▲고가(高價)로→비싼값으로▲공과(功過)→잘잘못▲공복(公僕)→봉사자, 심부름꾼▲공지사실(公知事實)→다아는사실▲구비(具備)해→갖춰▲구술(口述)하다→말로하다▲그리스 펜(×)→색연필▲금반(今般)(×)→이번▲금원(金員)(×)→돈▲금월(今月)→이달▲금후(今後)(○)→앞으로▲기(旣)→이미▲기보(旣報)한→이미알린, 이미보고한▲기존(旣存)

반올림▲사전(事前)에→미리▲산화(山火)→산불▲상기(詳記)하다→자세히쓰다▲상동(上同)→위와같음▲상승세(上昇勢)→오름세▲상응(相應)하다→알맞다▲색인(索引)→찾아보기▲석패(惜敗)하다→아깝게지다▲세리(稅吏)→세무공무원▲센서스→인구(국세)조사, (통계)조사▲소사(小使)(×)→사환▲소지(所持)한→가지고있는▲수거(收去)하다→거두어가다▲수납(收納)창구→(돈)받는곳▲수매(收買)하다→사들이다▲수매가격(收買價格)→사들이는값▲수범(垂範)→모범▲숙지(熟知)하다→잘알다▲스쿨버스→통학버스▲스폰서→광고주, 후원자▲시달(示達)하다→알리다▲시정(是正)하다→(잘못을)바로잡다▲실기(失機)해→때를놓쳐▲아국(我國)→우리나라▲아군(我軍)→우리군▲앙등(昂騰)하다→오르다▲양산(量産)→대량생산▲어드바이스→조언, 도움말, 충고▲엄수(嚴守)할것→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에스·오·피→운영예규▲여죄(餘罪)→그밖의죄▲여하(如何)한→어떠한▲연(然)이나→그러나▲연일(連日)→날마다▲예속(隸屬)→소속▲예의(銳意)검토→세밀히검토▲오일쇼크→석유파동▲왕년(往年)(○)→지난날, 한때▲요(要)함→필요함, 바람▲운전수→운전원, 운전사▲월담하여(×)→담을 넘어▲위증(僞證)→거짓증언▲유보(留保)하다→미루어두다▲유첨(有添)→붙임, 첨부▲육림(育林)→나무가꾸기▲이기(移記)하다→옮겨적다▲이데올로기→이념▲이식(利息)→이자▲이앙(移秧)하다→모내다▲

用語醇化 事例

총무처가 마련한「行政用語醇化便覽」(1輯)에 수록된 주요용어는 다음과 같다. (×표는 순화대상용어 不使用, ○표는 竝用, 표시가 없는 용어는 순화된용어 사용 권장)

(○)→이미 되어있는▲其旨(×)→그뜻, 그취지▲낭하(廊下)(×)→복도▲도료(塗料)→칠, 칠감▲同→같은▲용건(用件)→같은건(일)▲동소(同所)(×)→같은곳, 그곳▲동전(同前)(×)→위와같음▲등귀(騰貴)하다→오르다, 비싸지다▲등청(登廳)→출근▲리포트→보고(서), 보도▲리셉션→초대연(회)▲내역(內譯)→명세(明細)▲노임(勞賃)→품삯▲다이어(열차)→운행표, 시간표▲단(但)→그러나, 다만▲대과(大過)→큰허물, 큰잘못▲대절(貸切)하다(×)→전세내다▲리스트→목록, 명단▲링크→연결▲매각(賣却)하다→팔아버리다▲매년(每年)(○)→해마다▲매립(埋立)하다→메우다▲매진(賣盡)되다→다팔리다▲명기(明記)→분명히기록함▲명찰(名札)→이름표▲모델하우스→본보기집▲별단(別段)의→다른, 특별한▲별항(別項)→딴항목▲범례(凡例)→일러두기▲보너스→상여금▲보합세(保合勢)→주춤세, 멈춤세▲복명서(復命書)→결과보고서▲부관(附款)→제한사항▲부단(不斷)한→끊임없는, 꾸준한▲부의(附議)하다→토의에 붙이다▲분철(分綴)(○)→나눠매기▲무루(無漏)→빠짐없이▲무망(務望)하다→바라다▲미스→잘못, 실수▲밀매(密賣)하다→몰래팔다▲밀약(密約)→비밀약속▲바인더(서류)→보관철▲발본색원(拔本塞源)하다→뿌리뽑다▲발부(發付)→발급▲불응(不應)하면→응하지 않으면▲브리핑(○)→요약보고, 요약설명▲블랙리스트→요시찰인명단▲비자→(입국)사증▲사사오입(四捨五入)→

인덱스(×)→찾아보기▲일견(一見)→언뜻(보기에)▲일응(一應)(×)→일단▲일환(一環)으로→하나로, 한가지로▲입안(立案)하다→안을꾸미다, 안을세우다▲자상(刺傷)→찔린상처▲자(自)~지(至)→부터~까지▲자행(恣行)하다→저지르다, 거리낌없이하다▲작금(昨今)(○)→요즈음, 어제오늘, 요사이▲잔서(殘暑)→늦더위▲적요란(摘要欄)→참고란▲전가(轉嫁)하다→미루다, (떠)넘기다▲전무(全無)하다→전혀없다▲점(占)하다→차지하다▲정정(訂正)→바로잡음▲제고(提高)하다→높이다▲조회(照會)하다→알아보다▲주서(朱書)→붉은글씨▲중식(中食)→점심▲지가·지대(地價·地代)→땅값▲지분(持分)→몫▲지실(知悉)한→안▲질책(叱責)하다→꾸짖다▲차(此)→이것, 이▲차입(差入)(×)→넣어줌▲차질(蹉跌)→어김, 틀림▲차한(此限)에부재(不在)함→그러하지아니함▲척결(剔抉)하다→도려내다▲체불(滯拂)노임→밀린(품)삯▲체화(滯貨)→밀린화물▲체크·리스트→대조표, 점검표▲초심자(初心者)→처음배우는사람▲촉구(促求)함→거듭부탁합니다▲최기(最寄)우체국→가장가까운우체국▲추후통보(追後通報)함→다음에 알려드리겠읍니다▲출두(出頭)→출석▲출입금지(出入禁止)→들어가지마십시오▲치사(致死)하다→숨지게하다, 죽게하다▲카피→사본, 복사, 베낌▲캐스트→배역▲캠페인→(계몽)운동▲케이스→경우, 사례▲코뮈니케→성명(서)▲타전(打電)하다→전보치다

한국일보 詩壇

山行

成權永

靑山으로
돌아가는 길목길목
어린 나무들이 눈을 부빈다.
아기 숨결같은 密語를 따라
산속 깊이 들면
속살을 벗는 하늘.
아무도 없고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산새와 벌레소리
어허라!
저 소리 천길 벼랑에서
저 소리
九泉의 빗장을 쪼아대는 소리도…。
이미 나에겐
所有한 것도 없고 市井도 없어졌다。

◇추락한 유고旅客機 殘骸 유고항공소속 DC9여객기가 1백78명의 승객을 태우고 코르시카 아자시오 근처 산에추락, 전원사망했다. 사진은 산에 널려있는 비행기잔해(점선圓內)。【아자시오(코르시카) 2日AP聯=聯合】

유고機 墜落

탑승객 1百78명 沒死

【아자시오(코르시카)1日AP=聯合】승객과 승무원 1백78명을 태우고 유고북부 류블랴나시를 떠나 프랑스 코르시카섬의 캄포델로로 공항으로가던 유고 이넥스·아드리아항공사소속 DC9여객기가 1일아침9시께(한국시간 1일하오5시)착륙을위해 선회비행을 하던도중 구름으로 뒤덮인 부근 산악지대에 추락,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프랑스경찰구조대가 말했다。

이날 추락한 DC9 슈퍼80기는 유고의 국경일인 지난29일을 기념, 유고의 콤파스여행사가 모집한 코르시카 관광객 1백72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날 아침 류블랴나시를 떠났다。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저속으로 비행하다 착륙을 위해 너무빨리 기체를 기울였을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비행기에는 레이다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發癌유전자 分離추출법 開發

美위다라博士팀、세계最初로

【東京2日=聯合】인간의 방광암세포로부터 유전자조작기술에 의해 발암유전자를 분리, 추출하는 방법이 세계최초로 개발됨으로써 암발생의 구조를 해명하는데 커다란 돌파구가 열리게됐다。

이같은 발암유전자분리는 美골드·스프린터·하버드연구소의 M·위다라박사팀이 개가를 올린것으로 오는 4일 일본 京都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분자생물기구제1회심포지엄에서 정식발표될 예정인데 발암유전자의 구조가 대부분의 암세포의 유전자와 공통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아 발암구조해명을 통해 인류의 꿈인 암치료에 커다란 공헌을 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海外토픽

盜聽방지에 철저

★제네바美軍縮局사무실 美蘇간의 제1차 제네바군축협상의 전체회의가 열린 미군비관리국 제네바사무실 8층의 회의실은 창문마다 직경15인치의 도청방지장치 4개가 부착되어있으며 내부에는 길이7.5m 너비1.5m의 단순한 회의탁자가 놓여 있을뿐이다。

회의탁자위에는 물주전자와 재떨이가 놓여있는가운데 탁자주위에는 20명의 미대표단과 34명으로 구성된 소련대표단을맞을가죽의자가 촘촘히놓여있다。【제네바=UPI총】

都心교차로서 포옹

★교통마비시킨靑年 罰金 會에 취한채 교통신호를무시하고 번잡한 교차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애인과 포옹을나누던 호주의 한청년이 최근 1천17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1년6개월동안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받았다。

시드니외곽의 글렌헤븐에 사는 미첼·모노·스탠튼이라는 이청년(21)은 지난달 시드니시가지 한복판에서 신호등을 무시한채 자가용을네거리에 정차시켜놓고는 옆에 타고있던 걸프렌드와 신호등이 무려 3번 바뀔동안 사랑을 나누었다는것인데 치안판사는 교통혼잡을 일으킨것보다도 사랑을 나누다가 사고를 당해 죽지않은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꾸중。

한국무용 연구회서 5일 學術심포지엄

한국무용연구회(회장金梅子)의 제1회학술심포지엄이 5일하오3시 영동유드호스텔에서 열린다。「한국무용과 인접예술과의 관계」를 주제로 鄭在晩(세종대교수)、林鶴璇(梨大·西江大강사)、金永東(청주사대강사)씨등 5명이 발표를 한다。

時調會 시조창특강 오늘부터 30일까지

한국時調학회는 시조창 보존및 보급을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同학회에서 시조창 특강을 갖는다。

대상은 시조창에 관심있는 일반및 대학생(☎42-4243)。

日、關稅引下 2年앞당겨

黑字완화 위해…美·EEC에 通報

【東京1日AP=聯合】일본은 1일 東京라운드협정에 따른 관세인하 일정을 예정보다 약 2년 앞당겨 실시키로한 스즈끼(鈴木善幸)정부의결정을 미국과 歐共市(EEC)에 공식 통보했다。

일본은 이날 일본주재미대사관과 EEC대표부를 통해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으며 美·EEC관리들은 일본의 결정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美본국과 브뤼셀의 EEC위원회에 즉각 보고할것을 약속했다고 일본관리들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앞서 스즈끼수상의 지시에따라 약2천6백 개품목을 대상으로한 이같은 새로운 관세인하방침을 결정했는데 새조치는 오는82년4월1일부터 정식 발효하게된다。

일본의 이같은 결정은 급증하는 대외무역흑자를 완화시키기 위한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최근 미국과 EEC등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강력한 무역불균형 시정요구를 받아왔다。

特別檢事 요청안해 美法務, 앨런事件에

【워싱턴1日UPI·AP=聯合】美법무성은 1일 리처드·앨런 국가안보담당보좌관 사건에서 형사상의 위법사실을 전혀 발견할수없었기때문에 이사건의 재조사를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것이라고 발표했다。

윌리엄·프렌치·스미드법무장관은 이날 공식발표를통해 법무성이 앨런보좌관의 1천달러 사례금 수수사건을조사한결과 『앨런보좌관이 형법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구체적 정보도 입수하거나 발견하지못했다』고 밝히고 형사상의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은이상 특별검사의 임명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外信안테나

◆南阿共항공기납치범 석방=알베르·르네·세이셸대통령정권을 전복하려다 실패한후 인도여객기를 납치 남아공으로 납치했던 44명의 용병중 5명을 제외한 전원이 석방됐다고 디아크·겔덴후이스 남아공경찰국이 2일말했다。【요하네스버그=AP】

◆美上院, 對파F16機판매승인=미상원은 1일 파키스탄에 대한 F16 전폭기 40대판매를정식으로승인했다。

미상원은 이날 11억달러의 對파키스탄무기판매를 부결하는 결의안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판매가 자동적으로 승인되게했다。【워싱턴=UPI】

◆이란, 對美百20億弗배상 청구=이란은 고 팔레비왕의 구정부가 구매한 무기를 미국이 인도치 않는데 대해 1백20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국제중재위원회에 제기했다고 하산·누르바흐쉬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1일 밝혔다。【테헤란=AP】

美·蘇、協商구체화

核무기숫자등 異見조정

【제네바1日UPI=聯合】美蘇군축협상대표들은 30일 제네바에서 유럽배치 核미사일감축을위한 예비회담을 가진데이어 1일하오7시(한국시간)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이날 미군비관리군축국 제네바사무소에서 2시간40분동안 계속된 회담을 끝내고 나온 소련측 수석대표 유리·크비친스키는 『만사가 순조롭다』고 말하고 『미국대표와 오는4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폴·니처 미국측 협상대표는 이날 회의가 『솔직하고 사무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만 말했다。 미소양국 협상대표들은 앞서의 예비회담에서 재네바군축협상 내용을 공개하지않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美蘇양국대표들은 이날 첫실무회의에서 회담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정거리및 무기의 숫자와 양국핵 화력에대한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蘇, 美와妥協용의

【모스크바1日AP=聯合】소련은 브레즈네프공산당 서기장의 최근 제안들을 토대로제네바 미소 군축회담에서 미국과 타협할 용의를 갖고있다고 소련의 리테라투르나야·가제타誌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메아리

『평화는 전쟁보다 좋다。평화시엔 자식들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만 전시엔 부모가 자식을 묻는다』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산자와 죽은자가 엇갈리는 전쟁과 평화의 兩極性을 통렬하게 표현했다。이 말이 핵전쟁에도 통할 수 있을까…。

하버드대학의 섈링이란 교수는「1999년에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는 멸망할것」이란 끔찍한 예언을 했다。공교롭게도 1999년 지구종말론은 일부 末世論者들의 예언과 일치한다。

말세론은 천체운행과 관련 지구의 최후를 설명한다。그러나 과학자들은 오히려 인구폭발、환경오염 특히 핵전쟁이 인류문화를 종말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다고 본다。

최근 미국의학자들이 심포지엄을 통해 들려준 핵전쟁의 결과는 하늘이 무너져내릴듯한 전율을 느끼게 한다。의학자 토머스·한스티드는 비록 고통스럽게 살아 남는 인간이라도 그대로 암흑시대에 떨어져 버릴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가 가진 정부나 위대한 사회질서는 영영사라져버린다는것이다。낙관론자는 14세기에로의 후퇴정도를 상상할 수 있다한다。비관론의 입장에 서면 더욱 비참하다。방사능에 오염 안된 한줌의 음식과 물을얻으려 생존자들은 아귀다툼을 하며 연명하게 된다。빅터·시델박사는 더 무서운 현상을 예고했다。죽음 직전의 고통을 잊기 위한 모르핀조차 구할 수 없는 참경을 빚는다는것이다。

과학자뿐 아니라 미국국민들도 핵전쟁이 나면 미·소 어느 나라도 승자가 될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AP와 NBC방송의 여론조사결과가 알려 준다。『생존이냐 멸망이냐』한는 극한적인 핵의 위협앞에도 전쟁의 그림자는 세계 곳곳을 스산하게 만든다。작년 한해 세계무기판매고는 약1천2백억달러치에 달했다。국지전의 위협도 그만큼 확산된 것이다。

平和의 날

유엔총회는 내년부터 「평화의 날」을 제정키로 했다。평화의이상을 인류에고취시키고 국가와 국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이결정은 코스타리카서열린세계대학총장회의때 慶熙大 趙永植총장이 기조연설을통해 제안한 평화의지가 실현된것이다。세계인의 평화의지가 있는한 인류의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고 밝다。인간은 자기파멸을 자초할만큼 어리석지는 않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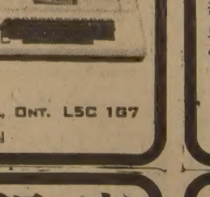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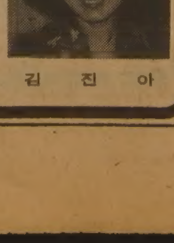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Yonge / Temperance St. / Ⓟ / K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MARY KAY

여성의 아름다움은 현명한 화장품 선택에서! 메리케이는 가장 품위있고 저렴하며 어떤 타입의 피부에도 소망을 이루어 드립니다.
X-마스 선물용 스페셜 패캐지가 다양하게 나왔읍니다.
(Free wrapping+delivery)
겨울철 피부미용 상담환영
파타임 원하시는 분은
270-4175로 연락요망
Sales Director
김 진 아



김 진 아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김신명

말썽教師는 教壇떠나게

文教部 市道학무국장회의 긴급召集 지시

賻博·폭행·異性관계·金品수수 教職員·책임자 함께 問責

教職者양성·任用과정도 재검토 補完

校長 교사私生活관찰…물의일면 嚴斷

문교부는 李潤相군 사건을계기로 부각되고있는 문제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 1차로 말썽이되고있는 문제교사들을 적발해내 교직자사회에서 떠나게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직자 양성과정과 임용제도및 각종 감사제도를근본적으로 재검토,문제교사가 교단에 서는것을 막는 방법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문교부는 또 이밖에 묵묵히 교육에헌신하고있는 대다수 교사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기앙양책도 펴기로했다。

潤相군 명복빌며… 朱교사 사건이 던진 문제교사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13개 시·도학무국장이 2일 자리를 같이했다。문제교사의 추방과 감독책임자의 인책등 강경책을 마련한 이들은회의에 앞서 잠시 고李潤相군의 명복을 빌었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2일▲교직원이 도박、이성관계 금품수수、음주、폭행및、기타 행위로 교권을실추시킨 사건에대해서는 해당교직원은 물론 감독책임자도 엄중문책하고▲현재 학내외、학부모、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거나 각종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는교사는 이를 적발、타교전출이 아닌 정화차원에서 인사조치하라고 각 시도교육위에 긴급지시했다。

문교부는 이날 鄭泰秀문교차관주재로 전국시교위 학무국장 회의를 소집、이같이지시하고『특히 사도(師道)실추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해주어 제2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을때는 지도감독 책임자까지 소급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특히 이번사건이 교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학교장의 감독 불충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학교장은 교직원의 사생활에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특히 부채가 많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한교사、기타 개인적인 고충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상담을 통해 일제 해결을 돕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학교장은 매일 한한급씩 교장훈화 시간을마련、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확립토록 하라』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이같은 단기대책과는 별도로 학교교육과 교직의 신뢰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는데 특히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사양성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과 재검토작업을 펴기로 했다。

이날 문교부관계자는 현재 지식위주로 짜여져있는 사범대학의 컬리큘럼을 인간교육중심으로 뜯어고치고 성적에 너무 의존하는 각종 교육의 평가제도 역시 재검토대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潤相군 추모 장학회」 만든다

母校 京西中에 "장애자 돕겠다"던 꿈 기리게

현상금1千萬원·弔慰金내놔

潤相군의 아버지 李貞植씨는 2일하오 현상금으로 내걸었던 1천만원과 조위금을 함께모아 潤相군모교인 京西중학교에기탁、「李潤相군 추모장학회」를 만들도록했다。

李씨는 이날『평소 의사가 돼 자신과같은 지체부자유마등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꿈을 가진 아들의 뜻을 기리기위해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고『비록 潤相이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자신을위해 쓰려던돈이 후배들을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알면 저세상에서도 기뻐할것』이라고 말했다。

朱등 셋收監 두女弟子 웃기도

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朱永炯교사(28)와 공범 李모양(17·Y여고2년)·高모양(17·D여고3년)등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하오9시40분 서울지법 姜昌雄판사에 의해 발부돼 세사람은 서울廳浦경찰서에 수감됐다。

경찰은 朱교사가 심경의변화를 일으켜 자해행위를 할것에 대비、다른 피의자 1명과 유치장6호실에 입감시켰고 두여학생은 5호실에 수감했다。

朱교사는 유치장간수조장 朴南約순경이『있을동안 사고없이 잘있다 가라』고 말을 건네자『알았다。잘있다 가겠다』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기도 했고 두 여학생은 朴순경에게『여기는 남자들만 있는 곳이냐。보호실보다 더 무서운곳인것 같다』고 말한뒤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 소곤거리며 웃기도했다。

朱永炯과 도박한 教師명단을 통보 4명은 立件

서울廳浦경찰서는 2일 朱永炯교사와함께 도박을 해온 李泰鎬씨(28·상업·서울江南區코오롱아파트12동)와方厚植(26·H대대학원생·江南區鶴洞)김철아(27·상업) 강호원씨(28·J은행행원)등 4명을 상습도박혐의로입건하고 李모씨(36·교사)등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명단을 서울시교위에 통고했다。

이들은 지난해초부터 지금까지 매월3차례가량 李씨의 아파트에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이다。

嗚咽속 영결식 "착하게살자"肉聲에 눈시울

李潤相군의 영결식이 2일 상오10시 서울적십자병원 영안실에서 京西중학교장(葬)으로 거행됐다。

潤相군의 부모와 누나 娟受양등 가족친지들과 具本錫서울시교육감、柳炯鎭대한교련회장 李相周청와대교육문화담당특별보좌관등 각계인사들과 殷容基 전京西중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급우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식으로 거행된 이날영결식은 오열과 비탄속에 헌화와 분향、약력보고、조사 및 독경의 순으로 30분간 진행됐다。

殷容基 전교장은 이날조사를통해『꼭 돌아오리라는 믿음과 바람으로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던 어버이마음같이 교실의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렸으나 潤相군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고 애통해하며『차디찬 강변에서 얼마나 따뜻한 어버이의품을 그리며 울고 있었겠읍니까』라고 울먹여 영결식장이 온통 눈물바다가됐다。

교우대표 李禎昕군(15·학생회장)은『潤相이 영전에 바치는글』에서『혹 어머니생각에 눈을 못 감는다면 우리들이 내어머니인양 모시마』라고 마지막가는 潤相군의넋을 달랬다。또 具本錫교육감은 추도사에서『우리 교직자들은 오늘의 치욕과 불행을 계기로 대오각성하여 참된스승의길을걸어 潤相군의 넋을 위로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영결식장에는 全斗煥대통령이 보낸 조화를 비롯 각계에서 보낸 조화20여개가 놓여있었으며 영결식에 앞서『우리모두 착하게 살자』는 潤相군의 육성녹음이 흘러나와 조객들은 숙연하게 했다。

朱永炯 不倫 신고받고도 어물쩍 轉出만

潤相군 유괴살해범 朱永炯교사가 서울C여중에 재직할당시 제자들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드러났었는데도 적절한처벌을 받지않은채 京西중학교로 전보됐었음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鄭雄燦씨(36·경일상사대표·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1의163)가 지난79년여름 길에서 C여중학생의 가방을뒤져 옆에보니 朱교사와 이학생과의깊은관계를적은 메모등을발견、C여중 교장을 찾아가『교사가 그럴수가있느냐』며 항의했었다고 밝혀 알려지게된 것。

鄭씨는 당시 교장으로부터『朱교사를 적절히 처리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면서『학교측이 朱교사의 불미스런일에 대해 사직시키거나파면등 중징계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한 하나의 요인이됐다』고 분개했다。

당시 학교측은 중등교원인사관리지침 나3항의『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교경영상 전보가 불가피한자』규정에 따라 서부교육구청에 전보내신을해 朱교사는 77년9월14일부터 근무해오던 C여중을 떠나 80년3월1일자로 京西중학교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당시 내신경위에는▲학교부근에서 상점을 경영、학생지도에 문제점이 있고▲한여학생의 일기장에서 불미스런 내용이 발견됐으며▲이사실에 대해 朱교사와 문제의 학생이 완강히 부인、진상을 밝히지못했으나 물의가 재발하지않도록 전보내신을 하게 됐다고 되어있다。

千萬원턴 은행갱 돌아서다가 잡혀

장난감 拳銃들고 협박…눈치챈 청원警察 덮쳐

대낮 서울봉래洞 中小企銀지점서…손님들 눈치못채

장난감 권총을 들고 은행에 침입한 강도가 청원경찰의 기지로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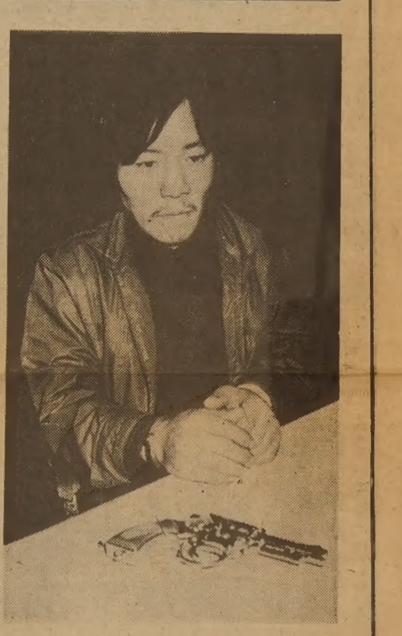
2일 하오3시15분께 서울 中區蓬萊洞1街 중소기업은행 南大門지점에 李寬善씨(26·공원·경기南楊州郡瓦阜面德沼里528)가 침입、장난감 권총(3·8구경형)을 차장 具滋雄씨(41)에게 들이대고 1천말원을 받아 달아나다 청원경찰과 행원들에게 격투끝에 붙잡혔다。

李씨는 이날 하오1시께東大門시장안 완구점에서 장난감권총을 1천2백원에 산뒤 미리 범행장소로 물색해놨던 중소기업은행 南大門 지점으로 들어가 곧바로 창구옆 통로를통해 차장 具씨에게 접근、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현금 1천만원을 내라』고 했다。

具차장이 행원을 시켜 1천만원을 준비시켜주자 이를 받아 옆구리에낀 李씨는『꼼짝하지말라』며 소리친뒤 창구옆을 돌아나오다 권총이장난감임을 알아챈 청원경찰趙伊鎬씨(29)와 출납계원 劉正培씨(20)등이 덮치는 바람에 격투끝에 붙잡혔다。

이때 은행안에는 행원들외에 10여명의 손님들이 있었으나 범행이 워낙 조용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눈치를 채지못했다。

李는 경찰에서『월 9만원을 받고 공원으로 일해왔으나 고달파 장사밑천을 마련키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붙잡힌 장난감 권총강도범 李寬善。

朱와 共犯李양 동반自殺기도

搜査網압축되자

潤相군 유괴살해범 朱永炯교사(28)와 공범 李모양(18)은 경찰수사망이 좁혀져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것같자 함께 자살할것을 모의했던것으로 밝혀졌다。

朱교사와 李양은 2일하오 서울廳浦경찰서 유치장에서 기자들과만나『범행후 둘이서 거의 매일만나 차라리 자살할것을 생각해 왔다』고 그동안 숨겨왔던심정을털어놓았다。李양은 범행후 朱교사와 연락이닿지않으면 혹시체포되지 않았는가 걱정했다고 말했는데 특히 朱교사가 거짓말 탐지기조사를 받은이후인 지난달 20일께는 서울永登浦區新吉洞에있는 경양식집에서 만났을때 朱교사가『내가 거의 범인으로 지목된것같다』고 말하자『증거만 나타나면 곧 잡혀가겠구나라는 생각에 자살을 생각했었다』고 밝혔다。

李양은 다음날부터 鍾路5街 보령약국과 永登浦시장부근 약국등에서 신경안정제를 사모으기 시작、지난25일밤 가족들이 잠든사이『치한에게 몸을 버렸다。임신을 했으니 죽어야겠다』는 내용의 거짓유서를 남기고 60알의 약을 털어넣었다는것。

오늘 現場검증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3일 상오8시부터▲유괴현장▲우진아파트 감금▲大成里북한강변 암매장현장등장소별로실시된다。

〈中央産業 사장〉 趙性喆씨 日서別世

국내건설업계 원로인 趙性喆 中央産業사장이 2일새벽일본、東京都立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향년63세 趙사장은 全經聯부회장도 역임했다。

구독신청 매일사고 533·2361

普急열차 特急승격

【順天=聯】전남 木浦와 釜山을 연결하는 慶全선의 보통급열차가 오는10일부터 특급열차로 승격 운행된다。

2일 順天지방철도청에 따르면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釜山발 木浦행 제391호와 木浦발 釜山행392호 보통급행열차가 오는 10일부터 특급으로 승격、운행하고 객차수도 현재의 5량(정원 3백50명)을 7량(4백90명)으로 늘리고 시설도 대폭 개수한다는 것。

또 운행시간도 현재의 9시간50분대에서 9시간20분대로 30분단축시켜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시킨다는것이다。

이로써 慶全선을 운행하는 특급열차수는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됐다。

來13일 DDD開通

【群山=聯】群山전신전화국은 群山―大田、群山―沃溝郡大野面간등 2개구간의 장거리자동전화(DDD)를신설、오는 13일 0시를 기해 개통한다。

이와함께 大野전신전화국도 群山을 비롯、서울·大田·全州·裡里·金堤·扶安등 7개구간에 장거리 자동전화를 신설、같은날 동시에 개통한다。

그리운 고국은
KAL 기
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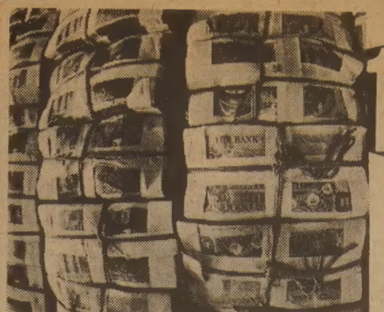
우리만이 통하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만이 가지는 우리의 예절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는
우리들의 대한항공…

고풍 가득한 십장생 그림이 있는
B 747 점보기의
넓고 아늑한 분위기…
우리의 가곡이 흥겹게 흐르는 스테레오
씨스템과
우리 고유의 음식 써비스…
그리고 사뿐히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승무원들의 수줍은 미소…
그리운 고국은 KAL 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QUEBEC)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大韓航空

지정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31-4607
신 세 계 여 행 사 536-2155
서 울 여 행 사 535-6004
제 일 여 행 사 535-2377



◇고액권이 너무 많이 발행돼 인플레심리를 부채질하고있다.

1萬원券이 너무많다

전체發行額의 36·7%차지

5천원券도 28%占有

잔돈 品貴, 서민·零細상인 큰불편

1만원짜리를 너무 많이 찍는다. 전체화폐발행액의 36·7%가 1만원짜리로 찍혀나오고 있다. 5천원짜리도 남발돼 발행비중이 28·5%나된다. 5천원짜리와 1만원짜리가 화폐발행총액의 65·2%를 차지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화폐의 3분의2가 高額券인 셈이다.

고질적 현금選好 습관·인플레 조성도

이에반해 이른바 주종화폐라는 1천원짜리는 발행비중이 27·6%밖에 되지않고 5백원짜리는 2·9%에 불과하다. 이때문에 시중에 잔돈품귀현상이 나타나고 1천원짜리와 5백원짜리 小額券을 많이 쓰는 일반서민들과 영세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2일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지난 79년말까지만 해도 주종화폐인 1천원짜리의 발행비중이 40~50%정도되고 5백원짜리 발행비중도 10~20% 수준을 유지했었으나 지난해부터 고액권발행이 급격히 늘기시작, 1천원짜리는 33·4%, 5백원짜리는 3·4%로 줄어들고 그반면 1만원짜리는 34·4%, 5천원짜리는 25·5%로늘어 전체화폐발행액의 절반이상이 고액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관계당국자는 참구수요보다 적은 물량으로억제해서 고액권발행을 하고있다고 밝히고 수요대로 발행한다면 고액권발행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국민1인당 화폐소지현황을 권종별로 보면 1만원짜리가 1·5장, 5천원짜리가 2·3장, 1천원짜리가 15장, 5백원짜리가 3장으로 소액권이 부족한편은 아니라고 말하고 고액권발행비중 62·2%도 일본의80%나 미국의72%에 비해 낮은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창구 담당자들은 잔돈이 부족해 바꾸러오는 고객들이 많다고 밝히고 특히 한은창구에서 소액권과 동전을 교환하는데 많은애로를 겪는다고 말하고있다. 시중상가에서도 잔돈부족과 소액권교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하는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고액권의 남발은 우리나라의 고질적병폐인 現金選好습관을 조장하고 심리적인면에서 인플레요인을 조성할뿐아니라 국민들의 은행이용관습을 방해하고 가계수표나크레디트카드등 신용거래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등 많은 부작용을 빚어내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體育中 부활

내년부터 올림픽對備策

83년부터 全國확대

체육중학교가 내년에 부활돼 88년도 서울올림픽을 위한 예비스타들이 육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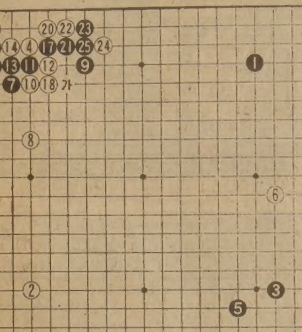
문교부는 7년후의 국가대표를 양성하기위한 조치의하나로 서울체육고등학교에 체육중학교를 병설, 내년3월 다시 학생들을 모집키로했다.

서울체육중학교의 내년도 모집정원은 우선 1학급 60명으로 종목별 유망주들을 입학시킬 방침이다. 체육중학은 서울을비롯 전국에걸쳐지난71년에 설립됐다가 5년만인 76년2월28일자로 慶北체육중학을 제외하고 모두 폐교됐었다.

그런데 전국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를 비롯 慶北體高 大田體高 釜山體高 全北體高등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인 仁川體高등 7개 체육고등학교가 있어 83년도에는 최소한 7개 체육중학교가 문을 열게될 전망이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第1譜 1~26 (각 5시간 덤 5집반)



白(4段) 姜 勳 〈2勝0敗〉
黑(4段) 鄭素鉉 〈1勝1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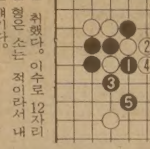
이번 리그戰에서 단한판인 4단끼리의 대결이다. 靑年氣銳派로서 이름난 이들인 까닭에 신선한「작품」이 생길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러나 커리어면에서는 아무래도 姜4단쪽이 유망하잖느냐는 평도있고 해서 이점 鄭4단은 좀 힘에 겨울지 모른다. 다만승리는 최선의길을 끝까지 밀고가는데서 얻어지는법, 觀戰子도 대국자못지않게 진지한태도로 지켜볼뿐이다.

필승을 기하는 자세로는 으레 평범한 포석이 택해지는듯, 白8까지 그런식이다.

한데 이평범한진행은 黑9로인하여 때이른 변화가 생긴다.

黑9는 보통「간」자리에 두칸뛰고 白은 25자리에 벌리게 되지만 鄭4단은 약4분을 소비하고 검토한 결론인즉『9로「간」에뛰면 白25로 벌리자는것이 白의 주문이므로 한번 역을찔러보았다』는 것이다.

期待되는 新鮮味



白10은 5분. 姜4단은 黑의 변화수에 대하여 적극 전의 자세를 취했다. 이수로 12자리에 모해두는 형은 소는 적이라서 내키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역시 젊은사람들의 패기있는 用兵運石이라 할까. 아뭏든 다음의 변화가 또 흥미거리다.

이리하여 黑11이 강수. 이하 白16까지 필연인데 여기서 黑15가 또 보통 현을 마다하는 변화수다. 黑15로 참고도 黑1이면 白2이하 6까지 옛날에 곧잘 두었던 형이 되는것이다.

黑17로 붙여 이하 白26까지 어쩔수 없는 진행인데 黑의 다음수가 어렵다. 【一凡】

한국女子 A팀은 2회서 中共B와

14개국서 21개팀出戰

스칸디나비아卓球

【백조(스웨덴)=李廷元특파원】 한국남녀 탁구대표선수단은 2일상오(한국시간) 제24회 스칸디나비아·오픈탁구대회가열린 스웨덴의 백조에 도착했다.

3일하오 개막되는 이대회 여자단체전에는 한국과 지난해 우승팀 中共등 14개국 21개팀이 출전, 4단식 1복식으로 패권을겨룬다. 한국A팀은 부전승으로 2회전에진출, 프랑스―오스트리아승자와 대결하며, 한국B팀은 1회전서 네덜란드 A팀과, 2회전에서 지난해우승팀인 中共A팀과 싸우게됐다.

中共은 남녀 각각 4명씩이 출전하며 모두 신인들로 구성된것으로 알려졌다.

여자단식에서는 한국의 에이스 李壽子가 시드1번을 배정받았으며, 여자복식에서는 李壽子·金貞美조, 黃男淑·安海淑조가 각각 2회전에 곧바로 올라갔다.

남자단체전에서는 한국 A팀이 헝가리와, 한국 B팀이 핀란드와 각각 1회전서 대결하게된다.

메모리얼 콜리시엄 대대적인 補修작업

LA 五輪경기장

【로스앤젤레스1日外=聯】 84년 올림픽경기장이될 메모리얼·콜리시엄의 대대적인 보수작업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경기장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작된다고 1일발표됐다.

약 2천만달러의 경비가소요되는 이번 보수작업은 급수시설·냉방장치·탈의실개선에서부터 경기장의 재단장새육상경기장의 정치작업에 이르기까지 시행된다.

스포츠話題

在日동포 野球선수 金信夫 金義明과같은 契約金 요구

프로球團側에 1億8千萬원제시

올해 日本고교야구의 1급투수로 프로팀에 1위로 지명된 在日동포 金村義明(18·報德學園)과 金城信夫(18·市川高)는 입단계약금으로 똑같은 6천만엔(韓貨1억8천만원)을 요구, 강력한 라이벌의식을 보이고 있다.

긴데쓰(近鐵)팀에 1위로 지명된 金義明이 먼저 6천만엔을 요구하자 난까이(南海)팀에 역시 1위로 지명된 金信夫도 질세라 6천만엔을 요구, 南海팀의 스카우트관계자들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

金信夫는『金義明엔 질수없다. 중학시절부터 라이벌이며 올여름 고오시엔(甲子園) 대회예선에서졌으나 그가 프로에 들어가 타자(近鐵팀은 金義明을 4번타자로 기용할 방침)로 전향하면 그를 압도하고 말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金信夫가 이처럼 강력한 라이벌의식을 나타내는데 비해 金義明은『그는애같은 말을 하고있다. 나의 라이벌은 자이언츠(巨人)의 마끼바라(槇原)이다』고 가볍게 응수했다.

金義明은 중학교시절 金信夫와 라이벌임을 인정하면서도『전국제패(甲子園대회우승)를 이룩한 나와 효오고(兵庫)縣 예선에서 탈락한 무명의 그를 동격으로 다루는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프로에 들어가기도 전에 입단계약금을 놓고 신경전을 펴고있는 이들이 프로선수로서 그라운드에서 대결한다면 볼만한 구경거리가 될것같다.

近鐵과 南海는 같은 퍼시픽리그에 들어있어 이들이내년시즌에격돌하게될것은자명하다. 【外紙에서】

◇金信夫

◇金義明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⑧

할머니의 몇가지著述

分娩 양육등 한국風俗圖 그려

할머니의「언더우드傳記」는 할아버지 元杜尤목사가 세상을 떠난지 2년뒤인 1918년 발행됐다.

이傳記는 18년전에 쓴「상투틀이들과 더불어 15년」이란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행담등을 더자세히첨가한것을 비롯 남편이 31년간 한국땅에서 봉사한 내용을 총정리한것으로 볼수있다.

할머니의 저술중 걸작은역시「With Tommy Tompkins in Korea」이다.

이책을 직역하면「福男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름을 가진 소년과함께」라 할수있을듯하다. 미를테면 한국에 와있는 외국어머니의 입장에서본 어린이를 키우는 이야기등 한국의 이모저모를 골고루 다루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할머니는 만년에 저술에 열중하셨을뿐 아니라 나와 나의 쌍동이 동생을 안아주시며 귀여워했다.

한국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를때는「치룻」이라는 소쿠리를 사용하더라는 점을 신기하게 기록하고있다.

한국에서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때 단순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무언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작명법도 소개하고있다. 漢慶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조병사將軍이 지어주었다는 사실도 밝히고있다.

할머니는 한국돈인 옛날 葉錢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있다. 당시 미국돈 10달러가 섞쭌으로 3만개였다는 흥미있는 비교를했다. 1889년3월 국왕은 할아버지(호러스·G·언더우드) 할머니(릴리아스·호튼)의 결혼축하선물로 1천달러에 상당하는 엽전을 말10마리에 보내온 이야기도 전하고있다. 10달러가 엽전으로 3만개였으니 1백달러는 30만개, 1천달러는 3백만개에 해당하니 진짜 말10마리가 동원됨을 법하다.

할머니의 기록에 의하면 한번은 할아버지가 景福宮에 들어갈때 5살가량된 아버지가 따라간 일이 있다. 그때 高宗황제가 선교사에게 고마운뜻을 전하기위해 자리에서 일어선사이 아버지가 그만 옥좌에 올라가 앉고말았다. 할아버지는 너무 당황하여 어쩔줄 몰랐다. 이를보고 高宗은 아버지를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었다는 것이다.

作名·葉錢·과일얘기등 재미있게 表現

우리집 이야기는 아니나 당시 선교사 자녀들이 왕자를 만날 기회가 더러 있었다. 그때 왕자가『너 몇살이니?』물으면 선교사자녀들은『나 몇살이다. 너는 몇살이니?』하고 되물었다고 한다. 정식으로 대답하자면『연세가 몇이십니까?』했어야 할것이나 어린이들이 그런말을 배우지 못한데서 빚은 에피소드인 것이다.

할머니도 한국에 포도 사과가 약간 있을뿐 과일이 별로 없다고 쓰고있다. 그러나 같은 미국에서 보던 과일로 그렇게 맛이 좋을수가 없다고 칭찬했다.

또 당시 한국엔 마차가 다닐만한 길도 별로없고 겨우 사람이 걸어다닐수 있을만한 길뿐이라고 안타까와했다. 시골길에서는 징검다리를 더러 만나는데 이나마 장마때는 휩쓸려버려건널길이 없어진다고했다.

양반집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보통여자들은 이름조차 가지고 있지않더라고 지적한 할머니는 예수를 믿고 비로소 이름이 생겼다고 그당시 한국여성의 사회적위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머니는 한국사람들이 별로 아는 노래가 없다고도 했지만 이는 진짜 한국인들이 흥을 돋우는 장면을 대할기회가 없었기 때문인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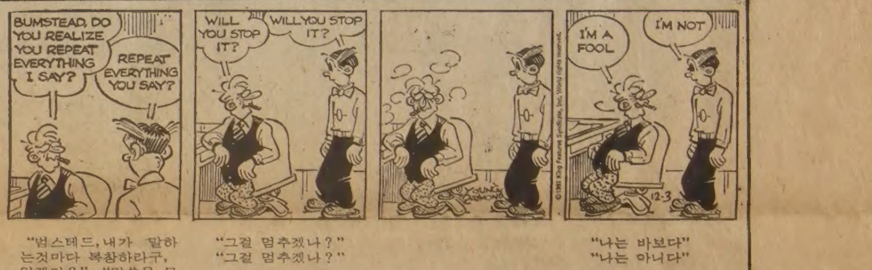
할아버지가 한번은 시골여행중일찍일어나날이밝았다면서식구들을 모두깨워 당나귀에 짐을 싣고출발을 서둘렀는데 막상 시계는 새벽 2~3시경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얘기는 할아버지의 성격이매우 활달했다는 실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달밤이 너무너무 밝고 밝았기때문이 아니었을까?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畵



"범스테드, 내가 말하는것마다 복창하라구, 알겠지?" "말씀을 모두 복창한단말이죠?"
"그걸 멈추겠나?"
"그걸 멈추겠나?"
"나는 바보다"
"나는 아니다"

프레이저 再起戰 無名의 커밍즈와

【시카고1日外=聯】 前세계헤비급챔피언인 조·프레이저(37)는 2일밤 시카고의 한 경기장에서 무명의 점보·커밍즈(31)와 재기전을 갖는다.

조·포먼 前세계헤비급챔피언에게 지난 1976년 6월 타이틀을뺏긴후 약 5년만에 첫경기를갖는 프레이저는 이경기에서 약8만5천달러의 대전료를 받을것으로 알려졌으며 TV중계는없다.

한편 4번째의 세계헤비급타이틀을 노리는 무하마드·알리는 이 경기 8일후 바하마諸島에서 캐나다의 헤비급챔피언인 트레버·버빅선수와 재기전을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남자日, 여자印尼서 83년 亞洲排球

【東京1日=聯】 아시아배구연맹은 오는83년11월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를 도오꾜(東京)에서 개최한다.

베데스다 4중주단 내일 8번째연주회

소아마비의 장애를 딛고일어나 꾸준한 음악활동을벌이고있는「베데스다현악4중주단」은 4일저녁7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8번째연주회를갖는다. 레퍼터리는 하이든의 현악4중주 76번D단조「五度」, 글라주노프의「5개의小品」작품15, 슈베르트의 현악4중주 14번D단조「죽음과 소녀」.

流星의 賦 〈250〉

感傷 異國月 ⑯

李炳注 作　李友範 畵

도주(島主)가 사자(使者)를 보내와서 상륙을 청했다. 정부사신이하 의관속대(衣冠束帶)를 정제하여 국서(國書)가 용정(龍亭)을 받들고 고악(鼓樂)은 잡혀 거동을 시작했다. 절월(節鉞)·나각(螺角)·화포(火砲)를 가진자들은 좌우대(左右隊)로 나뉘어 행진하고, 군관(軍官)·서기(書記)·역관(譯官) 및 종자(從者)들도 열을지어 나아갔다. 해변에서 객관(客館)까진 백여보(百餘步). 광장에서 왼편으로 꺾어 재를 올랐다. 돌층계를 올라 문안으로 들어서니 신축한 정각(亭閣)이 있었다. 중당(中堂)에 국서를 안치했다. 서쪽으로 세칸의 침사(寢舍)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 부사와 서장관의 거처였다. 동쪽으로 당상군관(堂上軍官)·당상역관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었다. 길을 사이에 두고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건물의 좌편이 군관·역관의 방이고, 중간이 제술관, 서기의 방이고 오른 편이 의원(醫員)·화공(畵工)의 방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방에 비치된 물건은 지위의 서열차(序列次)에 따라 약간씩의 차등이 있었다.

식사는 석차(席次)에 따라 좌정해서 한다. 각각 황칠(黃漆)의 소반으로 대접하는데 그 소반 위엔 검은 칠기 서너개가 놓여 있다. 밥, 국물, 채소, 생선등을 조금씩 담았는데 다 먹고 나면 다시 가지고 왔다. 소반을 운반하는 사람은 14·15세의 동자이다. 머리를 두상에 틀어 매어 기름을 발라 바르고 있었다. 백저(白苧)의 옷이었는데, 옷엔 화초, 송죽, 비조(飛鳥), 나비등의 무늬가 그려 있었다. 칼을 차고 정좌했다. 얼굴은 분을 바른것 처럼 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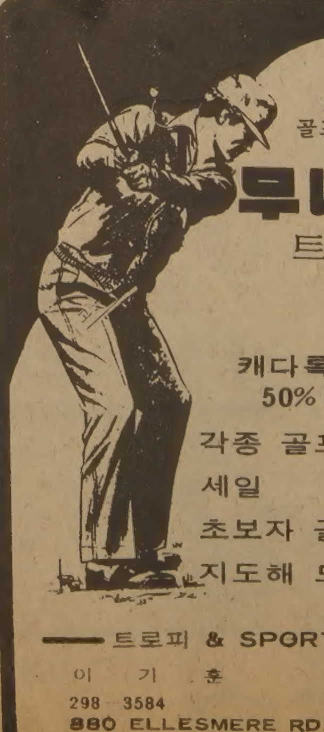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통신사 일행은 대마도에서 한달을 머물게 되는 것이지만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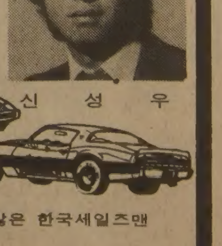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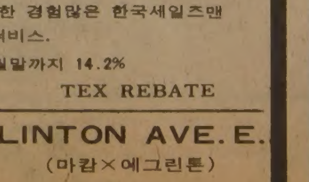
『일행이 대마도에 머물고 있을 무렵, 평의지(平義智)가 사신을 초대하여 어느 산사에서 잔치를 베푼 일이 있다. 사신들은 이미 좌정하고 있었는데 의지가 가마를 탄채 문안으로 들어와서 계단 바로아래서 내렸다. 김성일이 그것을 보고 노했다.『대마도는 우리나라의 번신(藩臣)이다. 사신이 왕명을 받들고 이곳에 와 있는데 이처럼 모욕하는가. 나는 이 연석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차고 나와버렸다. 허성등도 따라 나왔다. 의지는 그 잘못의 책임이 가마를 멘 하인들에게 있다고 하여 하인들을 죽여 그 목을 보이며 사죄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왜인들은 김성일을 외경하여 접대도 한결 정중하게 되었고, 김성일을 먼 빛으로 보기만 해도 말을 내려 공손하게 대했다』

당하관(堂下官)인 홍계남이 그 연석에 참석하지 않은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문인지 홍계남의 견문담엔 김성일에 관한 이 일화(逸話)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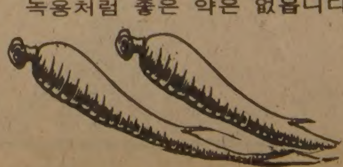
계남은 대마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열심히 [illegible]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中國良藥 大量供應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일요일 헬퍼구함(여자) (12시~저녁8시)
921-0624(다운타운소재)

●레스토랑에서 일할분(FULL TIME)
●좋은 대우
☎ : 486-1112(후랭소와)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 431-4474, 439-4885(MR. 김)

동업자 구함
아주적은 투자로서 좋은 사업 할 수 있음.
한국서 고졸이상자의 학력 소지자로서 캐네디안과 충분한 대화를 할수있는 인격을 갖춘분 환영함.
☎ : 962-0019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B) 656-6660
R) 224-2227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스토아 매매
주매상 : $4200 아스킹 $29000
☎ : 423-9899

매 매
자개애기 3층장, 나비장, 자개상.
☎ : 661-4581

① 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 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③ 그로서리(연매상 $700,000, 주6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나스샵 급매 :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야마하 피아노 매매 :
4년간 사용, $3300
☎ : 881-8230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트라우트 농장 매매 : 연매상 8만달러
관심 있으면 쥬디 브라운에게 연락요
해밀턴 523-7510 D. M. ROBBINS INC.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사무실·점포 렌트

다운타운 가게 세 놓습니다.
채소및 꽃가게 하실분을 찾습니다.
☎ : 365-1489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김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야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기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동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진용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춘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웅담 ●녹용 ●우황청심환 ●사향 ●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I.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해숙

니폰·비데오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사 광고부 제공

내 밭에 등불

梁貴子 作
金光培 畵
<9>

내, 차례를 기다리며 무료하게 앉아있던 내게, 웨이터가 메모를 들고 왔다. 대기실엔 마침 털보녀석이 와있었던 참이었다.

『누구야?』

『글쎄요. 젊은 아가씨 손님 혼자 앉은 테이블이에요』

웨이터의 의미심장한 웃음에 덧붙여 털보가 낄낄낄 웃었다.

『어라 어라. 네 놈에게도 이런게 오니? 인기오를 징조로다!』

그러나 나는 단박에 그 메모가 송희에게서임을 알아차렸다. 어떻게 알았는가를 따질 필요는 없었다. 나와 그녀 사이엔 그만한 끈쯤은 벌써 오래전부터 매어져 있었으니까.

〈내 생일이에요. 술값은 내가 낼께요. 노래를 불러줘요〉

『이거 대단한 여자로군. 너 임마, 단단히 걸렸구나. 낄낄낄』

털보녀석의 너스레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내 고막을 치는 소리. 내 생일이에요… 이제까지 한번도 나의 무어에요, 라고 말하지 않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날을 들고 내게로 왔다.

나는 쏜살같이 달려나왔다. 거리는 밤의 열기로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누군가의 몸을 치거나 발을 밟았다. 정신없이 뒤편서 살펴보아도 꽃집은 얼른 눈에 띄지 않았다. 갑갑했다. 꽃집이 없다니, 이런 낭패가…。

나는 거리 복판에 서서 솟아나온 이마의 땀을 훔쳤다. 시간이 모자랐다. 여기에서 머뭇거리다간 그나마 노래선물도 못하리라.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길건너 양장점의 쇼윈도에 무더기로 꽂힌 노오란 국화송이들이 화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양장점으로 들어갔다. 화사한 차림의 여인들이 소퍼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씨근덕거리는 사내의 욕망에 젖은 눈을 보았다.

『저 꽃을 파십시오. 한송이만이라도…』

여자 둘이 눈을 크게 떴다. 둘 다 성형한 눈임을 증명하듯이 움펑이처럼 깊게 패인 눈이었다.

나는 다급하고 초조한 나머지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곤 다짜고짜 마네킹과 마네킹 사이에 놓여있던 화병에서 한움큼의 꽃을 뽑아올렸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닥치는대로 몇장의 지폐를 꺼내어 여인네들의 탁자에 놓고는 뛰쳐나왔다.

『어마, 저런. 어머 어머』

얄궂은 비명소리를 들었던가, 못들었던가.

웨이터를 불러 심부름을 시키면서 보니 국화는 세송이었다. 밝지않은 실내의 조명에도 불구하고 송희는 금방 눈에 띄었다.

홀로 앉은 그녀의 모습과 신선하게 빛나는 국화 세송이를 바라보며 나는 기타를 추슬러 안았다.

실내에서 단연 빛나는 여자. 저기앉아서 내 노래를 기다리는 단 하나의 여자. 세상에서 가진 것이라곤 오직 이름뿐인 것같던 한 여자가 지금 막 내게 문(門)을 열었다. 비록 생일을 알려줄 수 있을 만큼, 꼭 그만큼 열린 문이지만.

마이크를 아래로 조종하면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향해 웃어보였다. 그녀가 꽃송이들을 조금 흔들었다.

생일을 축하해. 멀린 저리를 맨발로 다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네가 태어나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 나는 오직 그녀만 위해 노래를 [illegible] 그녀만을 위해서

All Languages Ltd
Helping People to Communicate
번역자들과 해석자
70개국 이상내
Suite 805, 69 Yonge St. Tor. Ont. M5E1K3 361-0303

모피

SPECIAL SACRIFICE SALE!!

밍크를 비롯한 여러가지 모피제품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모피의 양과 질에 대하여 알려 드리고저 열심히 뛰고 있읍니다.

좀더 폭넓게 양질의 밍크, 최고의 제품을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엄선한 알찬제품만을 가지고 **SPECIAL SACRIFICE SALE**를 하오니 언제든지 찾아 오셔서 입어보시고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록키모피 정 승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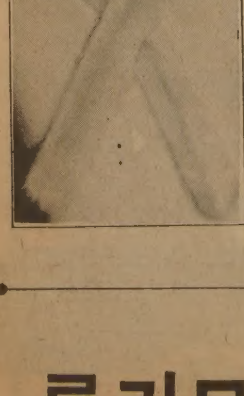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

AM10 :00~PM5 :30

12월13일(SUNDAY)
12월20일(SUNDAY)
OPEN합니다.

특별사은!

SALE 기간중 밍크코트 또는 쟈켓을 구입하시는 분에는 밍크타이(사진)를 —MAS 선물 드립니다。



■최고급 밍크코트, 쟈켓
(BLACK GLAMA MINK MAJESTIC MINK)

■각종 FOX 쟈켓
■머스크랏 쟈켓
■라쿤 쟈켓
■각종 밍크스토올, 목도리
■각종 여우 칼라
■알라스카 SEAL VEST
■비버 쟈켓(SHEARED)

록키모피

315 ADELAIDE ST. W. 2ND FLOOR
TORONTO, O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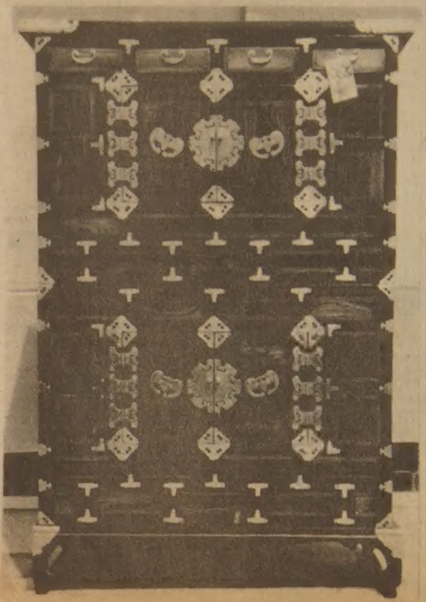
AM10 : 00~PM5 : 30

TEL: 366—4497

GRAND OPENING SALE

— 50% 까지 OFF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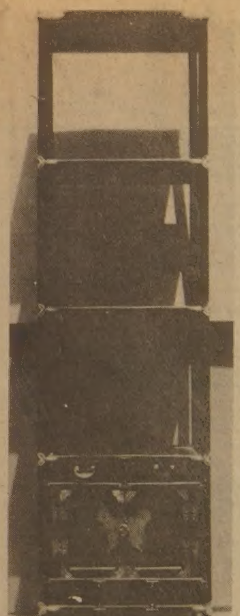
★세일기간 :
12월7일(월)~12월17일(목)까지



한국의 富一商事에서 직수입한 우리나라 고유의 각종가구를 선보입니다.

250개 이상의 실내에 장치하실 수 있는 각양각색의 가구들.

한번들려주셔서 구경하십시요.



2층장, 3층장, 약장, 장농, 안전장, 각종테이블, END TABLE, 장식용 선반장 등등…

BUSINESS HOURS :
10 : 00AM~9 : 00PM
(월요일~토요일)
※문의는 영어로 하십시요.

230 YORKLAND BLVD.

(세퍼드×돈・벨리HWY) (라마다 INN앞)

(416) 498-6953